

2019서울모터쇼

종합보고서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2019서울모터쇼

종합보고서

• 목 차

004

I
개최
개요

016

II
참가
업체

029

III
전시장
구성

034

IV
주요
행사

042

V
부대
행사

066

VI
홍보
내역

071

VII
개최 성과 및
개선사항

077

VIII
첨부자료

2019서울모터쇼 보도자료 배포	078
2019서울모터쇼 광고 및 홍보물	144
전시장 내외부 홍보 사인물	148
각종 사진자료	154

I

개최 개요

- 01 2019서울모터쇼 개요
- 02 조직위 구성
- 03 관람객 설문조사

01 2019서울모터쇼 개요

주제

Sustainable·Connected·Mobility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

-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
- 무한한 연결이 가능한 지능화된 자동차
- 기존 이동수단을 뛰어넘는 모빌리티의 새로운 비전

기간

- 장차기간 : 2019.3.20(수)~3.27(수) <8일간>
- 전시기간 : 2019.3.28(목)~4.7(일) <11일간>
 - * 개막일(3.29)은 12:00부터 관람 시작
 - 프레스데이 : 2019.3.28(목) 08:00~16:00
 - 개 막 식 : 2019.3.29(금) 10:30
 - 일반인만람 : 2019.3.29(금)~4.7(일) 10:00~19:00
- 철거기간 : 2019.4.8(월)~4.10(수) <3일간>

장 소

- 칸텍스(경기도 고양시)

전시규모

- 79,851㎡(전시장 1~5홀, 2전시장 9~10홀)

주 최

-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고양시

전시품목

- 승용차, 상용차, 슈퍼카, 튜닝 및 캠핑카, 이륜차, 타이어
- 전기차, 수소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품목
- 자율주행, 커넥티드 등 IT기술 품목
- 자동차 부품 및 용품, 자동차 생활문화 관련 품목, 서비스 등

참가업체

- 227개 업체
- 완성차 27개 브랜드(국산차 6개, 수입차 15개)
※ 총 270여 대 출품(WP 7종, AP 11종, KP 22종 등 신차 40종)
- 전기차 전문 브랜드, 자율주행, 커넥티드, IT, 에너지, 부품 및 용품 등 206개 업체(2017년 167개 업체)

전시차종

- 완성차 브랜드 신차 39종(WP 7종, AP 10종, KP 22종) 등 270여 대 전시

관람객수

- 약 62.8만 명(2017년 6만 명)

일자별 관람객 현황

일 자	3.28(목)	3.29(금)	3.30(토)	3.31(일)	4.1(월)	4.2(화)
인원(명)	1,200	34,000	101,500	121,000	36,400	38,000

일 자	4.3(수)	4.4(목)	4.5(금)	4.6(토)	4.7(일)	계
인원(명)	37,100	36,900	37,700	86,500	97,700	628,000

입장권 판매

- 온라인 판매(옥션티켓, 킨텍스 모바일앱)
 - 판매기간 : 2019.2.27~3.27(한 달간)
 - 가족단위 관람객 확대 유지를 위해 3인권과 4인권을 신설
 - 자동차 마니아, 자동차산업 종사자 등을 위해 전시기간(10일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전일 관람권 신설

구 분	관 매 가	비 고
일 반 인	8,500원	
초중고생	5,500원	
3인권	20,000원	
4인권	25,000원	
전일관람권	30,000원	전시기간 내 자유관람

- ※ 인터넷 예매 후 앱티켓 또는 현장티켓 교환
- ※ 행사 종료 후에는 현장판매기와 동일하게 판매

- 복지몰 판매(이지유패어)
 - 판매기간 : 2019.3.4~3.27(24일간)
 - 공무원 및 일반기업 종사자 유지 확대를 위해 복지몰(이지유패어) 사이트와 연계한 입장권 판매

구 분	관 매 가	비 고
일 반 인	8,000원	
초중고생	5,000원	

- ※ 인터넷 예매 후 현장티켓 교환

- 전시기간 중 판매
 - 전시장 현장(매표소)에서 방문객 대상 입장권 판매
 - 온라인(옥션티켓, 킨텍스 모바일앱)에서도 장상으로 판매

구 분	관 매 가		비 고
	개 인	단 체	
일 반 인	10,000원	7,000원	단체 기준 : 20명 이상
초중고생	7,000원	5,000원	
경로, 장애인, 고령시민	7,000원	-	증명서 지참 시에만 할인

- ※ 미취학 아동(2013.11 이후 출생) 무료 입장

- 셔틀버스 파카지 판매
 - 판매기간 : 2019.3.18~4.7(20일간)
 - 잠실, 강남, 당산, 송내, 분당, 안양 등 수도권 주요 거점에서 셔틀버스 운행(주말 4일간 운영)

구 분	사전예매(~3.27)		행사 중 예매(3.28~4.7)	
	일반인	초중고생	일반인	초중고생
셔틀파카지 (주말입장권+왕복셔틀버스)	12,000원	10,000원	13,000원	12,000원
셔틀버스 only	5,000원			

- ※ E-BUS 앱티켓으로 입장

- 단체할인 예매(2019.2.27~3.27)
 - 옥션티켓 고객센타를 통한 단체구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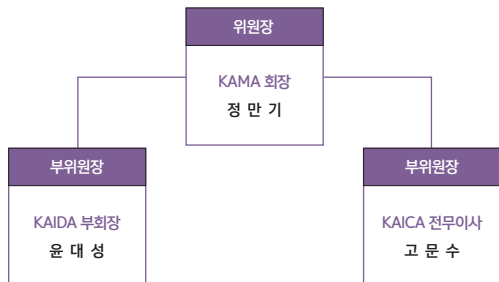
구 분	관 매 가	비 고
일 반 인	6,000원	단체 기준 : 220명 이상
초중고생	4,000원	
참가업체	5,000원	참가규정에 의거, 50% 할인

02 조직위 구성

조직위원회

- 구성 : 위원장은 KAMA가, 부위원장은 KAIDA와 KAICA가 담당
- 역할 : 서울모터쇼 주요 현안 관련 방향성 수립, 대외활동 전개

조직도



실무운영위원회

- 구성 : 공동주최기관(KAMA, KAIDA, KAICA) 실무자
- 역할 : 서울모터쇼의 기획, 예산수립, 사전준비, 운영, 홍보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업무수행

03 관람객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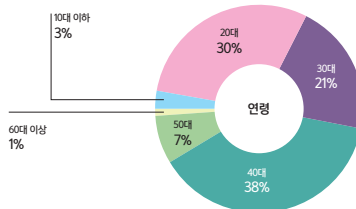
조사개요

- 기간 : 2019.3.29.~4.7
- 대상 : 2019서울모터쇼 관람객(컨텍스앱 이용 입장) 2,983명
- 방법 : 컨텍스앱 모바일입장권 입장객 대상 푸시 메시지 발송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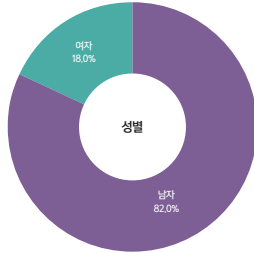
- 연령

구분	비율
10대 이하	2.9%
20대	29.7%
30대	20.7%
40대	38.1%
50대	7.6%
60대 이상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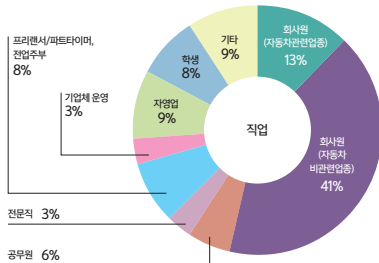
· 성별

구분	비율
남자	82.0%
여자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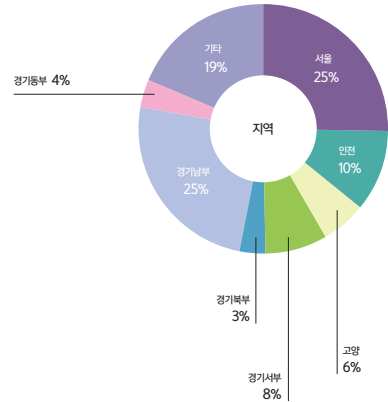
· 직업

구분	비율
회사원(자동차관련 업종)	12.4%
회사원(비 자동차관련 업종)	41.3%
공무원	5.7%
전문직	3.3%
프리랜서/파트타임, 전업주부	8.1%
기업체 운영	3.1%
자영업	8.9%
학생	8.1%
기타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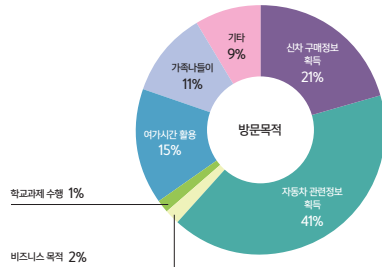
· 지역

구분	비율
서울	25.4%
인천	10.5%
고양	6.0%
경기서부(의정부, 광명, 파주, 김포 등)	8.0%
경기북부(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 등)	3.4%
경기남부(성남, 부천, 수원, 시흥, 안양, 평택 등)	24.5%
경기동부(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등)	3.6%
기타	18.6%



· 방문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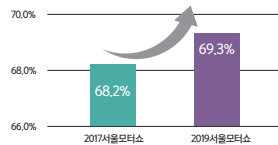
구분	비율
산차 구매정보 획득	20.6%
자동차 관련정보 획득	41.2%
비즈니스 목적	2.0%
학교과제 수행	1.5%
여가시간 활용	15.1%
가족나들이	11.0%
기타	8.6%



· 관람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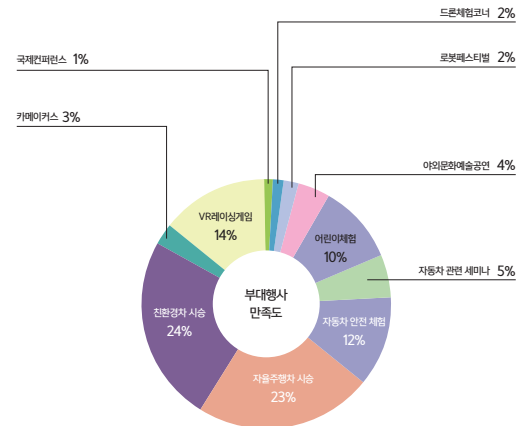
구분	비율
2017서울모터쇼	68.2%
2019서울모터쇼	69.3%

관람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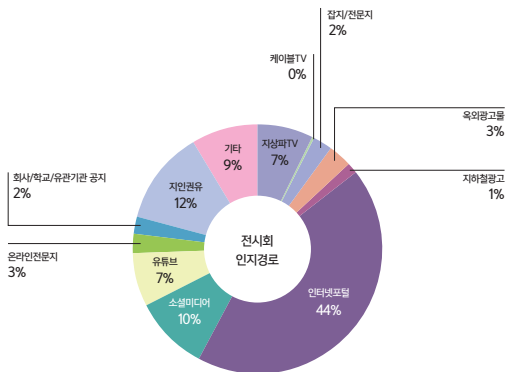
· 부대행사 만족도

구분	비율
국제컨퍼런스	0.9%
드론체험코너	1.6%
로봇페스티벌	1.8%
아외문화예술공연	4.3%
어린이체험	10.3%
자동차 관련 세미나	5.3%
자동차 안전 체험	11.8%
자율주행차 시승	23.0%
친환경차 시승	24.4%
카메이커스	2.7%
VR레이싱게임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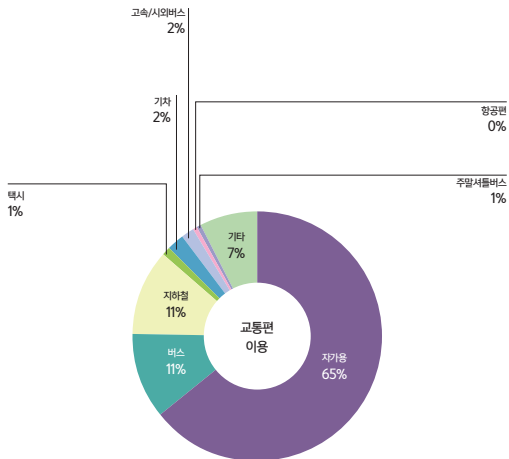
· 전시회 인지경로

구분	비율
지상파TV	7.3%
케이블/IPTV	0.3%
잡지/전문지	2.4%
옥외광고물	3.2%
지하철광고	1.3%
인터넷포털	43.4%
소셜미디어	9.6%
유튜브	7.2%
온라인전문지	2.5%
회사/학교/유관기관 공지	2.1%
지인 권유	12.3%
기타	8.4%



· 교통편 이용

구분	비율
자가용	64.4%
버스	11.0%
지하철	11.2%
택시	1.1%
기차	2.2%
고속/시외버스	1.7%
항공편	0.4%
주말셔틀버스	0.7%
기타	7.3%



II

참가업체

- 01 참가업체 현황
- 02 주요 전시품목 현황
- 03 분야별 출품차종

01 참가업체 현황

총 참가업체 수

· 227개사

Auto makers World	Sustainable World	Connected World	Mobility World	Auto parts World	International Pavilion	Food-tainment World
21개 브랜드	18개사	5개사	24개사	82개사	40개사	6개사
총 227개사(자동차제조산업관, 캠핑존 및 체험부스 참가기업 포함)						

테마관별 참가업체 세부현황

· Auto makers World :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구 분	브랜드명			계
국내브랜드	현대	기아	쉐보레	6개
	르노삼성	쌍용	제네시스	
해외브랜드	BMW	CITROEN	DS	15개
	HONDA	JAGUAR	LAND ROVER	
	LEXUS	MASERATI	MERCEDES-BENZ	
	MINI	NISSAN	PEUGEOT	
	PORSCHE	TESLA	TOYOTA	
계	21개 브랜드			

※ 테슬라 전시부스는 Mobility World에서 운영

· Sustainable World : 에너지 관련 기업 및 기관

업 체 명			계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물산과학기술원	한국전력공사	18개
녹색드림협동조합	수소융합얼라이언스(13개)	현대상용차	
계	18개사		

· Connected World : 통신/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등으로 구성

업 체 명	계
(주)엔씨넷 (주)인랜드솔루션	5개
주식회사 클린일렉스 SK텔레콤	
(주)파엘케이테크놀로지	

계	5개사
---	-----

· Mobility World : 전기차 전문 브랜드, 로봇, 드론, 스마트업 업체 등

업 체 명	계
마스타전기(차주) (주)비씨스코 주식회사 하이스카이 영월드론비행교육원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패스티벌	24개
광주그린카진용원(12개) 캠시스 아이티메이커스 협동조합 (주)와우미래기술	
(주)대창모터스 (주)파워프라자 에스앤케이모터스 주식회사 드론알씨랜드	

계	24개사
---	------

· Auto parts World : 부품, 이륜차, 캠핑카, 부품소재, 용품업체 등

구 분	브랜딩명		계
부품	현대모비스	씨엔모터스(클럽넵버원)	대원강업(주)
	인에이블인타내셔널	덕일산업(주)	영화공업(주)
	케이에이치테크	(주)한국쓰리엣	(주)벤텍다엔씨
	아주자동차대학	(주)투팩스이카페미코리아	진합
	노블클라베	(주)유라코퍼레이션	(주)카렉스
	피비	더빅컴퍼니	극동제연공업(주)
	(주)일진글로벌	CHABOT	진우엔지니어링(주)
	마이팀	다이넥스	가이미디어
	오닐	모빌테크	자트코코리아
	제이엔에스이엔지	(주)제닉스 크리에이티브	대송이엔지
	(주)제이카	(주)코리아하이테크	전자부품연구원
	카인드캠핑카	아람반	SK네트웍스(주)
	SPAL AUTOMOTIVE	베트남 DEEP C 산업단지	(주)서울로보틱스
	(주)타이츠코리아	한국셀서유	다음기술
	로턴	칼포스코퍼레이션	올다타임(에피카)
	(주)마인디즈 - 카랑	(주)카누리	렌카(주)
	아이마스(주)	(주)팀와이퍼	(주)카바삼
	(주)시퀀스엔	카스페이스	(주)오토업컴퍼니
	(주)한진MDS	(주)오토업케어	(주)OCMobile
	(제)FIT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중동자동차교육연구회	코메트인타내셔널 (리얼타이랩비)	
	강인령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씨오비 오일레스 베이킹 코리아 주식회사		
	BYD Auto Industry Company Limited		
	Eberspächer Climate Control Systems GmbH & Co. KG		

주식회사 굿윌 나이스 코일메트 (만능TPMS) (주)뉴다이엔씨(차아네) 웹스틴 디지털	(주)내한미디어뱅크 유상상사 멜팅포인트 아이로드 주식회사(카픽) 텍조 (주)홍보넷	(주)오토클링 케이엔에이치인타내셔널 (주)미진비엔젤 / 엑세이버	14개
---	--	---	-----

이륜차	인디언 모터싸이클	대전기계공업(주)	2개
-----	-----------	-----------	----

계	82개사
---	------

· International Pavilion : 해외기관 및 기업

업 체 명	계
MOSOLF SE & Co. KG GEMMACON GmbH WITOLRA Consulting GmbH Wieland Werke AG VDA QMCBlitzol GmbH Nowak OBRISTCzechInvest Katcon Korea Co., Ltd. sedeco.jalisco.gob.mx San Luis Potosí Embassy of Mexico American Industries Group Grupo Prodensa Yucatan State Government Sánchez Devanny Attorneys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nergy WKW Erbslöh Automotive GmbH Fränkische Industrial Pipes GmbH & Co. KG NEUMAN ALUMINIUM Fließpresswerk GmbH Hitachi Automotive Systems Espelkamp GmbH Crain Communications GmbH Gobierno del Estado de Chihuahua Amistad Industrial Developers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British Embassy Seoul	40개

02 주요 전시품목 현황

국내 완성차(승용) 전시품목

브랜드명	모델명	유형	차급	유종	자율주행기능
현대자동차	SONATA	세 단	중 형	Gasoline	탑 재
	SONATA TURBO	세 단	중 형	Gasoline	탑 재
	NEXO	SUV	중 형	FCEV	탑 재
	VELOSTER N	해치백	준중형	Gasoline	미탑재
	i30 N	해치백	준중형	Gasoline	탑 재
기아자동차	MOHAVE PE	SUV	대 형	Diesel	탑 재
	SP2	Concept	소 형	Gasoline	탑 재
	KED-13	Concept	준중형	EV	미 정
	NIRO EV	SUV	소 형	EV	탑 재
	SOUL EV	SUV	소 형	EV	탑 재
한국지엠	K9	세 단	대 형	Gasoline	탑 재
	STINGER	세 단	중 형	Gasoline	탑 재
	SOUL	SUV	소 형	Gasoline	탑 재
	K3 GT	세 단	준중형	Gasoline	탑 재
	TRAVERSE	SUV	대 형	Gasoline	
르노삼성	COLORADO	SUV	대 형	Diesel	
	SPARK	승용밴	소 형	Gasoline	
	MALIBU	세 단	중 형	G / D	
	IMPALA	세 단	준대형	Gasoline	
	CAMARO	스포츠카	대 형	Gasoline	
르노삼성	TRAX	SUV	소 형	G / D	
	EQUINOX	SUV	중 형	Diesel	
	BOLT EV	해치백	소 형	EV	
	SM6	세 단	중 형	Diesel	
	SM6	세 단	중 형	Gasoline	
르노삼성	QM6	SUV	중 형	Diesel	

르노삼성	QM6	SUV	중 형	Gasoline	
	QM3	CUV	소 형	Diesel	
	EZ-PRO	Concept			
	ESTAFETTE	클래식카			
	MASTER VAN	LCV		Diesel	
르노	MASTER BUS	LCV		Diesel	
	CLIO	해치백	소 형	Diesel	
	TWIZY		초소형	EV	
쌍용자동차	뷰티풀 코란도	SUV	준중형	Diesel	탑 재
	G4 렉스턴	SUV	대 형	Diesel	탑 재
	렉스턴 스포츠	SUV	대 형	Diesel	탑 재
	렉스턴 스포츠 칸	SUV	대 형	Diesel	탑 재
	티볼리 아머	SUV	소 형	G / D	탑 재
제네시스	티볼리 에어	SUV	소 형	G / D	탑 재
	G90L	세 단	대 형	Gasoline	탑 재
	G90	세 단	대 형	Gasoline	탑 재
	G80 Sport	세 단	준대형	Gasoline	탑 재
	G80	세 단	준대형	G / D	탑 재
제네시스	G70	세 단	중 형	G / D	탑 재
총 49종					

해외 완성차(승용) 전시품목

브랜드명	모델명	유형	차급	유종	자율주행기능
BMW	The BMW Concept i4 Vision Dynamics	Concept	중 형	EV	
	The BMW Concept M8 Gran Coupe	Concept	GKL+		
	The all-new BMW 3 Series	세 단	KKL+	G / D	탑 재
	The first-ever BMW X7	SUV	GKL+	Diesel	탑 재
	BMW M4 GT4	쿠 페	KKL+	Gasoline	미탑재
	BMW New M5 Individual	세 단	MKL+	Gasoline	탑 재
	BMW New M2 Competition	쿠 페	UKL++	Gasoline	미탑재
	i8 Roadster	로드스터	GKL+	PH-EV	미탑재
	BMW 7 Series M760Li Individual	세 단	GKL+	Gasoline	탑 재
	BMW 5 Series	세 단	MKL+	Gasoline	탑 재
MINI	The all-new BMW Z4	로드스터	KKL+	Gasoline	미탑재
	The all-new BMW X5	SUV	MKL+	Diesel	탑 재
	Classic Mini Electric Concept	Concept	소 형	EV	미탑재
	MINI David Bowie Edition	클래식카	소 형		미탑재
	MINI 3 Door Hatch 60 Years Edition	해치백	소 형	Gasoline	미탑재
	MINI JCW Ice Blue Edition	왜 건	소 형	Gasoline	미탑재

MINI	MINI JCW Clubman	왜 건	소 형	Gasoline	미탑재
	MINI Cooper S Countryman ALL4	SUV	소 형	Gasoline	미탑재
	MINI Cooper S 5 Door Hatch	해치백	소 형	Gasoline	미탑재
	MINI Cooper S Convertible	컨버터블	소 형	Gasoline	미탑재
Maserati	Levante Trofeo	SUV	대 형	Gasoline	탑 재
	Quattroporte GTS GranLusso	세 단	대 형	Gasoline	탑 재
	Ghibli S Q4 GranLusso	세 단	대 형	Gasoline	탑 재
	Levante S GranSport	SUV	대 형	Gasoline	탑 재
	GranCabrio Sport	컨버터블	대 형	Gasoline	탑 재
	Ghibli GranSport	세 단	대 형	Gasoline	탑 재
Mercedes-Benz	Quattroporte S Q4 GranSport	세 단	대 형	Gasoline	탑 재
	C 350 e	세 단	중 형	PHEV	탑 재
	E 300 e	세 단	준대형	PHEV	탑 재
	S 560 e	세 단	대 형	PHEV	탑 재
	GLC 300 4M Coupe	SUV	중 형	Gasoline	탑 재
TOYOTA	C 200	세 단	중 형	Gasoline	탑 재
	RAV4 HYBRID	SUV	준중형	HEV	탑 재
	RAV4	SUV	준중형	Gasoline	탑 재
	CAMRY HYBRID	세 단	중 형	HEV	탑 재
	CAMRY	세 단	중 형	Gasoline	탑 재
	AVALON HYBRID	세 단	준중형	HEV	탑 재
	PRIUS PRIME	세 단	소 형	PHEV	미탑재
	PRIUS C	세 단	소 형	HEV	미탑재
	SIENNA	MPV	대 형	Gasoline	탑 재
	86	스포츠카		Gasoline	미탑재
PORSCHE	SUPRA	Concept		Gasoline	탑 재
	718 Boxster GTS	스포츠카	대 형	Gasoline	미탑재
	718 Cayman GTS	스포츠카	대 형	Gasoline	미탑재
	Cayenne	SUV	대 형	Gasoline	미탑재
	Macan	SUV	대 형	Gasoline	미탑재
	Panamera 4 E-hybrid	세 단	대 형	PHEV	미탑재
	Panamera Turbo	세 단	대 형	Gasoline	미탑재
	911 Carrera S	스포츠카	대 형	Gasoline	미탑재
	919 Tribute	레이싱카	대 형	Mock-up	미탑재
	918 Spyder	스포츠카	대 형	PHEV	미탑재
	Cayenne E-hybrid	SUV	대 형	PHEV	미탑재
	오리지널 1세대 911 Targa	스포츠카	대 형	Gasoline	미탑재
CITROEN	시트로엥 뉴 C3 에어크로스	SUV	소 형	Diesel	탑 재
	시트로엥 뉴 C5 에어크로스	SUV	중 형	Diesel	탑 재
	시트로엥 C4 킥투스	SUV	소 형	Diesel	미탑재

CITROEN	시트로엥 그랜드 C4 스페이스투어러	MPV	중 형	Diesel	탑 재
	DS 3 크로스백	SUV	소 형	Diesel	탑 재
	DS 7 크로스백	SUV	소 형	Diesel	탑 재
Peugeot	뉴 푸조 508	세 단	중 형	Diesel	탑 재
	뉴 푸조 508	세 단	중 형	Diesel	탑 재
	푸조 3008 SUV	SUV	중 형	Diesel	미탑재
	푸조 5008 SUV	SUV	중 형	Diesel	탑 재
NISSAN	신형 알티마	세 단	중 형	Gasoline	미탑재
	신형 리프	해치백	준중형	EV	미탑재
	엑스트레일	SUV	준중형	Gasoline	미탑재
	맥시마	세 단	대 형	Gasoline	미탑재
	무라노	SUV	중 형	Gasoline	미탑재
	패스파인더	SUV	대 형	Gasoline	미탑재
LEXUS	370Z	스포츠카		Gasoline	미탑재
	RX 450h	SUV	중 형	HEV	탑 재
	NX 300h	SUV	중 형	HEV	탑 재
	UX 250h	SUV	소 형	HEV	탑 재
	LF-1 Limitless	Concept	대 형	Gasoline	미분류
	RX 350L Cut Body	SUV	대 형	미분류	미분류
	IS 300 F Sport	세 단	중 형	Gasoline	미탑재
	LS 500h	세 단	대 형	HEV	탑 재
	ES 300h	세 단	준대형	HEV	탑 재
	CT 200h	Compact	준중형	HEV	탑 재
HONDA	LC 500h	스포츠카	대 형	HEV	탑 재
	RC F	스포츠카	대 형	Gasoline	미탑재
	New Model	세 단	준중형	Gasoline	탑 재
	Accord Turbo	세 단	중 형	Gasoline	탑 재
	Accord Turbo Sport	세 단	중 형	Gasoline	탑 재
	Accord HEV	세 단	중 형	PHEV	탑 재
	CR-V Turbo (2W)	SUV	중 형	Gasoline	탑 재
	CR-V Turbo (4W)	SUV	중 형	Gasoline	탑 재
	Odyssey	Minivan	대 형	Mock-up	탑 재
	Pilot	SUV	대 형	PHEV	탑 재
	Pilot Elite	SUV	대 형	PHEV	탑 재
	뉴 XE	세 단	중 형	Diesel	탑 재
JAGUAR	XF	세 단	중 형	Diesel	탑 재
	XJ50	세 단	대 형	Diesel	탑 재
	F-TYPE	스포츠카	대 형	Gasoline	탑 재
	F-PACE SVR	SUV	중 형	Gasoline	탑 재
	I-PACE	SUV	중 형	EV	탑 재

JAGUAR	E-PACE	SUV	준중형	Diesel	탑 재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SUV	준중형	Diesel	탑 재
	레인지로버 벨라 SVA-Dynamic	SUV	중 형	Gasoline	탑 재
	레인지로버 LWB	SUV	대 형	Gasoline	탑 재
LAND ROVER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	SUV	대 형	Gasoline	탑 재
	레인지로버 스포츠 PHEV	SUV	대 형	PHEV	탑 재
	디스커버리 스포츠	SUV	중 형	Diesel	탑 재
	디스커버리	SUV	대 형	Diesel	탑 재
	모델 3			EV	탑 재
TESLA	모델 X			EV	탑 재
	모델 S			EV	탑 재
총 109종					

전기차전문브랜드 전상품목

브랜드명	모델명	유형	차급	유종	자율주행기능
	ZORO	소형EV	소 형	EV	미탑재
	CENTRO	준중형EV	준중형	EV	미탑재
	TORO	소형EV	소 형	EV	미탑재
	CENTRO TAXI	준중형EV	준중형	EV	미탑재
SNK모터스	TORO X	소형EV	소 형	EV	미탑재
	TORO V	Van	소 형	EV	미탑재
	TORO T	Truck	소 형	EV	미탑재
	TJ	SUV	소 형	EV	미탑재
	CJ	EV Van	소 형	EV	미탑재
	R MOTO CYCLE	오토바이	오토바이	EV	미탑재
SNK모터스	TOURING WP	오토바이	오토바이	EV	미탑재
	SCOOTER A	오토바이	오토바이	EV	미탑재
	SCOOTER B	오토바이	오토바이	EV	미탑재
	MASTA LC	Truck	1Ton 트럭	EV	미탑재
	MASTA CV	Van	Van	EV	미탑재
마스타자동차	MASTA MICRO	소형차	소형차	EV	미탑재
	MASTA MNI	소형차	소형차	EV	미탑재
	MASTA VAN	상용차	소형상용차	EV	미탑재
인에이블	Npro	스쿠터	스쿠터	EV	미탑재
인터네셔널(NIL)	Ncargo	스쿠터	스쿠터	EV	미탑재
	YEBBUJANA R2	Concept	소 형	EV	미탑재
파워프라자	0.5톤 리보ev피스	경형화물	경 형	EV	미탑재
	1톤 봉고ev피스	상용화물	소 형	EV	미탑재
	스타렉스ev피스	승합차	소 형	EV	미탑재

	르노마스터ev피스	상용화물	중 형	EV	미탑재
파워프라자	SMART EV D2	소형차	소 형	EV	미탑재
	SMART EV R3	소형차	소 형	EV	미탑재
대창모터스	다니고 3	소형차	소 형	EV	미탑재
캠시스	CEVO-C	소형차	소 형	EV	미탑재
총 29종					

이륜차브랜드 전상품목

브랜드명	모델명			계
BMW Motorrad	New S 1000 RR C 400 GT	R 1250 GS Adventure R nine T Scrambler	R 1250 RT	5종
HONDA Motorcycle	CB500F CB650R CRF1000L A/S Forza 300	CBR500R CBR650R X-ADV PCX	CB500X GL1800 CBR1000RR SP NBT110	12종
대전기계공업(주) (Kawasaki)	H2 SX SE PLUS Versys 1000	ZX-10R KRT Z900RS	ZX-6R 636	5종
Indian Motorcycle	FTR1200 Dark Horse Chieftain	Scout Chief Vintage Roadmaster	Scout Bobber Springfield	8종
총 30종				

03 분야별 출품차종

출품차량수

약 220종, 270대

· 완성차 158종, 전기차 29종, 이륜차 브랜드, 자율주행차솔루션 2종 등

신차

39종

· 월드프리미어 7종

브랜드	모델명	비고
현대자동차	SONATA TURBO	
	SONATA HYBRID	
	N PERFORMANCE	Concept Car
기아자동차	MOHAVE MASTERPIECE	
	SP SIGNATURE	Concept Car
르노삼성자동차	XM3 INSPIRE	Show car
LAND ROVER	Range Rover Velar SVA-Dynamic	

· 아시아프리미어 10종

브랜드	모델명	비고
기아자동차	IMAGINE by KIA	Concept Car
BMW	BMW M8	Concept Car
	BMW M4 GT4	
DS	DS 3 CROSSBACK	
JAGUAR	New XE	

LAND ROVER	All New Range Rover Evoque	
Mercedes-Benz	A 250 4M	
	GLE 450 4M	
MINI	Classic Mini Electric Concept	Concept Car
	MINI David Bowie Edition	

· 코리아프리미어 22종

브랜드	모델명	비고
한국지엠(쉐보레)	TAHOE	
르노삼성자동차	MASTER BUS	
BMW	BMW i Vision Dynamics	Concept Car
	The first-ever BMW X7	
	BMW New M2 Competition	
	The all-new BMW Z4	
Citroen	CITROEN NEW C3 AIRCROSS	
	CITROEN NEW C5 AIRCROSS	
HONDA	Civic Sport	
LEXUS	UX 250h	
	LF-1 Limitless	Concept Car
Mercedes-Benz	C 200	
	GLC 300 4M Coupe	
	Mercedes-AMG CLS 53 4MATIC+	
MINI	MINI 3 Door Hatch 60 Years Edition	
NISSAN	All-New Altima	
PORSCHE	New Macan	
	New 911 Carrera S	
	Cayenne E-hybrid	
TOYOTA	RAV4 HYBRID	
	RAV4	
	SUPRA	Concept Car

· 컨셉트카 9종

브랜드	모델명	비고
현대자동차	N PERFORMANCE	World Premiere
기아자동차	SP SIGNATURE	World Premiere
	IMAGINE by KIA	Asia Premiere
르노삼성자동차	EZ-PRO	
BMW	BMW i Vision Dynamics	Korea Premiere
	BMW M8	Asia Premiere
LEXUS	LF-1 Limitless	Korea Premiere
MINI	Classic Mini Electric Concept	Asia Premiere
TOYOTA	SUPRA	Korea Premiere

III

전시장 구성

- 01 전시장 내외부 조성
- 02 전시장 레이아웃
- 03 장치물

01 전시장 내외부 조성

전시장 내부

- 컨텍스 제1전시장 전체(1~5홀)와 제2전시장 절반(9~10홀)을 사용하고 7개의 테마관(World)을 조성하여 완성차, 전기자, 이륜차, 부품 및 용품 등을 전시
- 제2전시장 9홀 내부에 친환경차시승행사(외부와 연계), 자동차안전체험, VR 체험, 넥쓰자율주차 시범, 대학생자율주행대회 입상차 전시, 예술과의 콜라보레이션(윤승켈러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관람객 체험공간으로 활용
- 공동행사인 자동차제조산업관과 캠핑존을 제2전시장 9홀에 조성함으로써 기존 전시 외에도 B2B 활성화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
- 전시장 내 천장헤너 및 파이텍스를 각 World에 따라 별도 구분하여 관람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기능 강화(현장 리플렛 및 안내판에도 동일 적용)
- 내부 주동로(10m) 및 통로 폭을 여유 있게 확보하여 관람객이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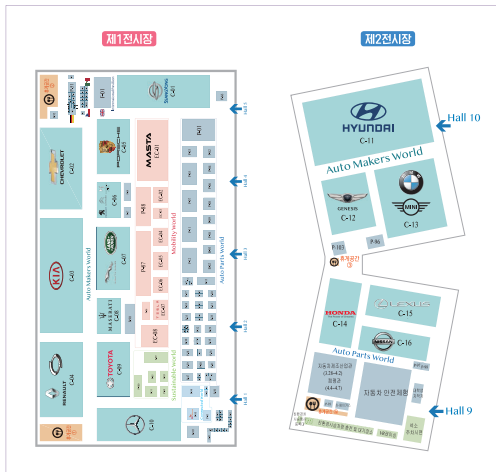
전시장 외부

- 매표소를 제 1전시장 3홀 앞, 제 2전시장 10홀 앞에 설치하여 입장권 구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모바일 매표 관람 안내 사인물을 통해 현장에서의 혼잡 방지
- 문화예술공연 개최(제2전시장 광장), 자율주행차시승체험(제1~2전시장 양복), 친환경차시승행사(제2전시장 하역장) 등 외부공간을 활용한 다수의 부대행사 개최
- 전시장 외부와 무빙워크 등 각 주요거점에 전시장 및 매표소 안내 표시를 하여 관람객 이동 동선 유도
- 우천에 대비, 매표소 및 무빙워크에 응급텐트를 설치하여 관람객 편의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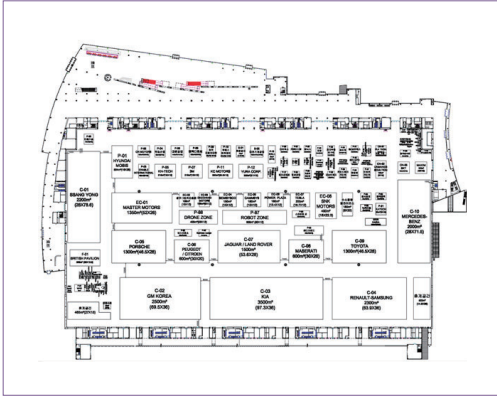
02 전시장 레이아웃

레이아웃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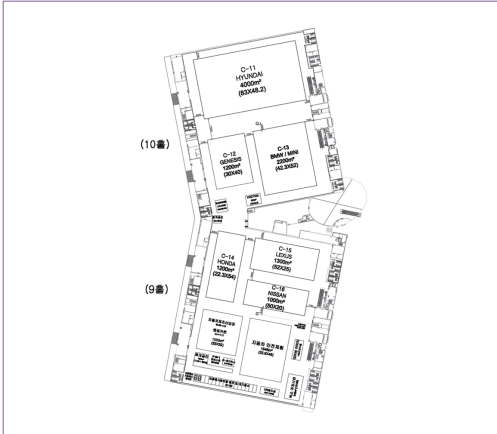
- 7개의 테마관(World)을 조성, 각 테마에 부합하는 업체들을 묶어서 배치
- 테마관별 전체 도면



1전시장 레이아웃



2전시장 레이아웃



03 장치물

독립식 부스 및 조립식 부스

- 독립식 부스
 - 전시장 제한 구역 내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장치 및 전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정
 -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원' 제작, 배포를 통해 복층 설치, 주동로와 인접한 면 개방, 안전규정 등에 대한 준수 유도
- 조립식 부스
 - 독립식 부스와 조화를 이루도록 고급화된 목공 소재를 사용하고 2019서울모터스 카비주얼과의 통일성 부여

주차차시설

- 종합안내센터
 - 제1전시장 1층 3홀 앞 로비, 제2전시장 1층 로비에 각각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안내 편의 제공
- 출입증발급대
 - 제 1전시장 5홀 앞, 제 2전시장 9홀 앞 로비에 출입증발급대를 설치하여 참가업체 바이어에게 출입증 발급 교제 업무 진행
 - 언론인 등을 위하여 프레스센터에서 Press 출입증 발급 업무 지원
- 프레스센터
 - 기사작성실, 휴게실, 업무지원실로 구분한 별도의 프레스센터를 설치, 운영
 - 프레스데이 및 개막식에 언론인이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해당일은 제2전시장 3개의 회의실(301+302+303홀)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제2전시장 2층 프레스센터로 이동하여 운영
 - 내·외신 기자들의 기사 작성, 원고 송부, 취재 지원, 참가업체 및 주차자 보도자료 지원, 휴게공간 및 음료제공 등 편의시설 설치
- 매표소
 - 제1전시장 1홀, 3홀 앞 외부, 제2전시장 9홀 및 10홀 입구 방면 외부 등 4개소에 매표소를 설치, 운영
 - 전회 대비 매표소를 분산 운영하여 현장 혼잡도를 크게 줄임

IV

주요 행사

- 01 프레스데이
- 02 개막식

01 프레스 데이

- 일 시 : 2019.3.28(목) 08:00~16:00
- 장 소 : 전시장 내 참가업체 부스
- 내 용 : 참가업체별 신차 발표 및 전시 출품 설명
- 참 석 자 : 국내외 언론매체 보도진, 관계자, 특별초청자 등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언론인 이동시간 5분 별도 부여)
- 참가업체별 프레스브리핑 현황

1전시장		
No.	시간	회사명
1	08:00~08:20	메르세데스-벤츠
2	08:25~08:45	한국지엠
3	08:50~09:10	재규어/랜드로버
4	09:15~09:35	마세라티
5	09:40~10:00	기 아
6	10:05~10:25	푸조/시트로엥
7	10:30~10:50	토요타
8	10:55~11:15	르노삼성
9	11:20~11:40	포르쉐
10	11:45~12:05	쌍 용
11	12:10~12:25	씨미시스코
12	12:30~12:45	SNK모터스
13	12:50~13:05	영국관
14	13:10~13:25	마스터자동차
15	13:30~13:45	인메이블인터내셔널
16	13:50~14:05	안맨드솔루션
17	14:10~14:25	파워프라자
18	14:30~14:45	캠시스

2전시장		
No.	시간	회사명
1	09:00~09:20	닛 산
2	09:25~09:45	렉서스
3	09:50~10:10	BMW/MINI
4	10:15~10:35	현 대
5	10:40~11:00	혼 다

프레스센터 운영

- 언론인의 원활한 취재와 기사 작성을 위해 프레스데이 및 개막식, 일반관람객으로 구분하여 운영
- 3.28(목)~3.29(금) : 제2전시장 3층(301호+302호+303호)
- 3.30(토)~4.7(일) : 제2전시장 2층 Press Room
- KAMA 홍보담당자 및 홍보대행사, 통역요원이 상주하여 운영 지원

02 개막식

- 일시 : 2019.3.29(금) 10:30
- 장 소 : KINTEX 2전시장 6홀B
- 참석대상 : 정부부처, 자동차업계 대표, 유관기관,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
- 참석인원 : 516명(오전 30명 참석)

초청대상	개막식 참석인원	오찬 참석인원
정부, 국회, 정부기관	59	41
대사관	75	49
기 업	264	128
연구기관, 대학교	118	83
합 계	516	301

- 주요 참석인사

소 속	직 책	성 명
서울모터스조직원위원회	위원장	정만기
국 회	의원	이상돈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유정렬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장	정우영
기아자동차	사장	박한우
현대자동차	부사장	양진모
한국지엠	사장겸대표이사	Kaheer Kazem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Dominique Signora
쌍용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	이광섭
SK탈레콤	ICT기술센터장	박진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달석
고양시	제1부시장	이춘표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허남용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이종화
자동차산업학회	회장	김용진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회장	최경호
한국자동차그룹	부사장	윤경림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	Tanaka Hiroyasu
포드코리아	대표이사	장재희
Mercedes-Benz Korea	대표이사	Dimitris Psillakis
FMK	대표이사	김광철
한국닛산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성중
포르쉐코리아	대표이사	Michael Kirsch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	김영재
모즐프그룹	회장	Dr. Joerg Mosolf
멕시코 대사관	대사	Bruno Figueroa Fischer
자동차부품산업재단	이사장	오원석
덕일산업(주)	대표이사	유기덕
KC MOTORS	대표이사	최자선
유라코퍼레이션	회장	엄병윤
인도자동차협회	회장	Rajan Wadhera
인도자동차협회	전무	Sugato Sen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	김상욱
벡스코	대표이사	이태식
킨텍스	대표이사	임창열
킨텍스	부사장	윤호준

추진방향

- 기존 개막식 형태를 벗어나 참가업체가 주인공이 되는 컨셉으로 운영
- 참가업체의 우수기술 및 신제품을 소개하는 "Keynote Speech" 도입 (3개 업체 발표)

진행순서

구분	내용	시간	비고
개막식	환갑	10:15~10:29 (14분)	2전시장 6층 VIP룸
	내빈 입장	10:29~10:31 (2분)	행사 타이틀 영상 상영
	개막 공연	10:31~10:33 (2분)	"미래 자동차를 그리다"VR퍼포먼스
	행사안내	10:33~10:36 (3분)	행사안내 및 내빈소개
	개막사	10:36~10:39 (3분)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정만기 위원장
	영상 브리핑	10:39~10:42 (3분)	행사개요 및 주요특징 등
	Keynote Speech	10:42~10:59 (17분)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술본부 윤경림 부사장 "현대자동차그룹의 Smart Mobility 전략"
		10:59~11:15 (16분)	SK텔레콤 (KT)기술센터 박진호 센터장 "5G가 열아가는 모빌리티 미래"
		11:15~11:25 (10분)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 다나카 히로야스 대표이사 "Another 100 years JATCO KOREA"
	기념촬영	11:25~11:30 (5분)	주요인사 무대도열 후 기념촬영
오찬	전시장 방문	11:30~12:50 (80분)	주요 전시참가업체 방문
	오찬장 이동	12:50~13:00 (10분)	2전시장 6층B
	인사말	13:00~13:01 (1분)	정만기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
	건배제의	13:01~13:02 (1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신달석 이사장
	오찬	13:02~13:59 (56분)	
폐회	폐회	13:59~14:00 (1분)	폐회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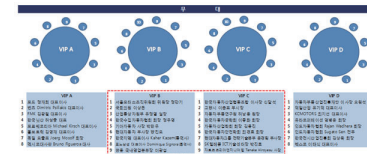
도착 및 영접 동선



개막식 및 오찬 좌석 배치

개막식 좌석 배치도	오찬 좌석 배치도
<p>무대</p>	<p>무대</p>

VIP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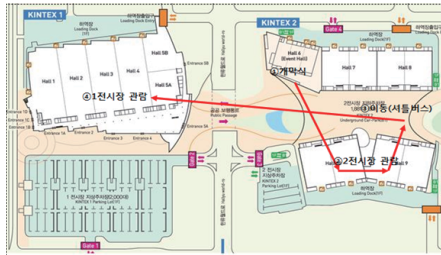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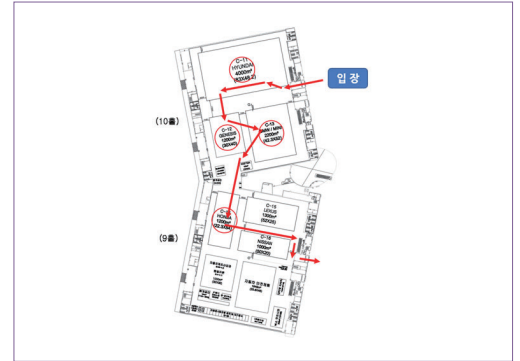
전시장 방문

· 방문순서 : 제 2전시장 9~10홀 → 킨텍스 제 1전시장 1~5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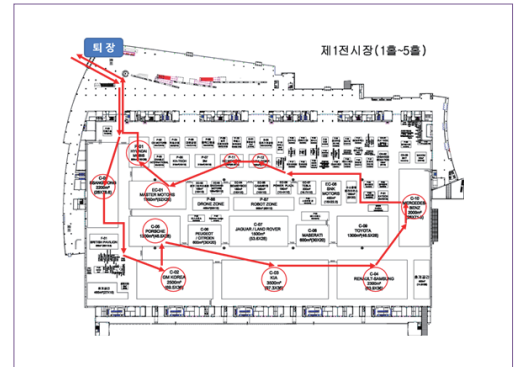


- 2전시장에서 1전시장 이동시 자율주행차량 이용(안드로이드스루선 3명, 스프링클라우드 1명 탑승)
- 방문업체 : 14개 업체(완성차 1개, 부품 3개)
- 내 용 : 주요 방문업체의 대표차종 시승 및 기념촬영

- 이동동선
- 2전시장



- 1전시장



V 부대 행사

- 01 국제컨퍼런스
- 02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 세미나
- 03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
- 04 「Smart Road&Smart Vehicle 2019」 세미나
- 05 「한-아세안 자동차산업 협력방안」 세미나
- 06 제5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 07 참가업체 신기술 프레스 브리핑
- 08 B2B 상담회
- 09 멕시코 투자설명회
- 10 자율주행자동차 시승행사
- 11 친환경차 시승행사
- 12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후원 및 수상작 전시
- 13 자동차안전체험존
- 14 로봇과 함께하는 SW교육 페스티벌
- 15 드론체험존
- 16 문화예술공연

01 국제 컨퍼런스

행사 개요

- 주제 :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
- 일시 : 2019.4.2(화) 10:00~13:00
- 장소 : KINTEX 제2전시장 6홀 B·C관

프로그램 및 참가 현황

- 연사 : 6명(기술분야: 3인, 산업분야: 3인)
- 강연 프로그램

구분	시간	강연제목	연 사
오프닝	10분	오프닝 퍼포먼스	
1부	30분	[기조연사] 자동차 산업의 가치창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할	빈프리트 베버 [독일 만하임응용과학대]
	30분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해 변화하는 기술	스티븐조프 [스탠포드대학]
	20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자동차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교육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
	10분	휴식	
2부	30분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규제와 기술적 과제들	후센 압델라티프 [TUV SUD]
	20분	미래 모빌리티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동차 디자인	리차드 정 [한국자동차디자인협회 회장]
	30분	미래 이동수단의 변화 : Flying car	램코 버워드[PAL-V]

· 참가자 현황

- 총 참석인원 : 1,350명(2017년 국제컨퍼런스 참석인원 1,400명)
- 분야별 참가자 현황 : 일반인 706명(52%), 학생 644명(48%)

02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 세미나

행사 개요

- 일시 : 2019.4.3(수) 13:30~17:00
- 장소 : KINTEX 제전시장 회의실 212~213호실
- 공동주최 : 서울모터스조직위원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참석 : 자동차업계, 전자IT업계, 일반인, 학생 등 약 270명

프로그램 및 참가 현황

- 연사 : 6명
- 강연 프로그램

시간	강연제목	연사
13:30~14:00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	정지훈 교수 [「미래자동차 모빌리티혁명」 저자/경희사이버대학교]
14:00~14:30	4차 산업 혁명과 미래 이동성의 진화 : 연결의 초월성(Transcend Connectivity)	서장식 전무 [현대자동차]
14:30~15:00	5G시대 KT 스마트 모빌리티	최강림 상무 [KT]
15:30~16:00	5G 기술로 진화하는 Mobility	이종호 상무 [SK텔레콤(SK/Mobility사업단)]
16:00~16:30	모빌리티 플랫폼의 진화와 대응과제	배호수 국장 [이모빌리티연구조합]
16:30~17:00	모빌리티 혁명과 교통서비스의 진화	문영준 선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 각 강연당 30분씩 배정

· 참가자 현황

~ 자동차업계, 전자IT업계, 일반인, 학생 등 약 270명

정부 기관	자동차 업계	연구소	전자·IT	유관 기관	언론·기타	총계
25	106	20	45	32	42	270

03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

행사 개요

- 일시 : 2019.4.5(금) 14:00~17:20
- 장소 : KINTEX 제전시장 회의실 212~213A호실
- 공동주최 :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한·이베나 자동차산업 연구회
- 참석 : 자동차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

프로그램 및 참가 현황

- 연사 : 5명
- 강연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연사
13:30~14:00	등 록	
14:00~14:30	에너지측면에서 본 자동차산업의 미래	이항구 선임연구원 [산업연구원]
14:30~15:00	자동차 동력의 발전전망	이기형 교수 [한양대학교]
15:00~15:10	Coffee Break	
15:10~15:40	수소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김재경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15:40~16:10	수소충전소 기술과 경제성 확보 방안	이경철 수석연구원 [한국가스공사]
16:10~16:40	수소전기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및 전망	김민수 교수 [서울대학교]

※ 각 강연당 30분씩 배정

04 「Smart Road & Smart Vehicle 2019」 세미나

(부제 : 미래 ITS와 자율협력주행)

행사 개요

- 목적 : ITS 정책·기술 동향 및 산·학·연·관 정보 교류
- 일시 : 2019.4.4(목) 10:00~16:30
- 장소 : KINTEX 제전시장 회의실 212호실
- 주최/주관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후원 :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참석 : 산업계, 공공기관, 연구원 등 210여 명
- 5K텔레콤, KT, LG유플러스,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ICT, 한화시스템/CT, 팬타시큐리티시스템 등 7개 업체 등록

프로그램 및 참가 현황

- 연사 : 7명
- 강연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연사
10:00~10:40	V2X 통신보안 및 보안인증관리체계	이창준 팀장 [한국도로공사]
10:40~11:20	울산광역시 C-ITS 실증사업 추진계획	이상희 주무관 [울산광역시]
11:20~12:00	광주광역시 C-ITS 실증사업 추진계획	박준열 팀장 [광주광역시]
12:00~13:00	중식	
13:00~13:40	교통안전인프라 자율주행차 운행 지원	고광용 박사 [도로교통공단]
13:40~14:20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현황	이용관 사무관 [국토교통부]
14:20~14:50	Coffee Break	
14:50~15:30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LDM 기술 및 적용	최윤수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15:30~16:10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C-V2X 기술	황재호 책임 [LG전자]
16:10~16:30	폐회	

05 「한-아세안 자동차산업 협력방안」 세미나

행사 개요

- 일시 : 2019.3.29(금) 14:00~17:40
- 장소 : KINTEX 제전시장 회의실 211호실
- 공동주최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아세안 자동차산업 연구회
- 참석 : 한국-인도네시아-베트남 자동차업계 관계자, 국회의원, 정부 FTA 담당자, 자동차산업연구자 등

프로그램 및 참가 현황

- 연사 : 4명
- 강연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연 사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	김용진 학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14:10~14:30	축 사	송갑석 [국회의원]
		신달석 이사장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Umar Hadi 대사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14:30~16:10	Strategy to Value Chain Connect between Korea-Vietnam	김필성 부장 [KOTRA]
	Indonesian Policy on the Motor Industry: Present and Future	Mr. Dodi 자동차산업 부국장 [인도네시아 산업부]
	Prospects from Indonesia: Cooperation between Korea-Indonesia Auto Industry	Kukuh Kumara 사무총장 [GAIKINDO]
	Korea-ASEAN Cooperation in Auto Industry	조 철 실장 [산업연구원]
16:10~16:20	Coffee Break	

16:20~17:30	사회자 : 김가찬 교수 [한-아세안 자동차산업연구회] 토론	운영진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FTA 담당]
		고문수 전무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송창석 교수[송실대학교]
		김준규 실장[한국자동차산업협회]
		Nguyen Van Thuong 제너가리안 [주한 베트남 대사관]
17:30~17:40	행사 종료	

06 제5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행사 개요

- 주제 : 우리산업 전환기, 글로벌에서 답을 찾다
- 일시 : 2019.4.2(화) 13:30~17:30
- 장소 : KINTEX 제1전시장 회의실 211호실
- 주최 :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OTRA, 월드OKTA, 대한상공회의소, KFI,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벤처무역협회, 사상생포럼, KINTEX, Spinnaker Support

행사 개요

- 연사 : 6명(기술분야: 3인, 산업분야: 3인)
- 강연 프로그램

구분	시간	강연제목	연사
1부	14:00~15:35	개회사	윤원석 [포럼회장]
		축 사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장관]
		[기조연설] 주력산업,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정민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전 산업부차관]
		[주제발표] 글로벌진출, 기업의 경제외교 플랫폼 활용 전략	김상목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주제발표] 4차 산업혁명대비, 기업의 원가절감방안과 사례	Mr. Matt Stava [CEO of Spinnaker Support(미국)]
2부	15:45~17:00	[특별강연] 오강, 블랙판도 수출하는 발상의 전환, 기업이 정신 길러야	이영현 [월드옥타 명예회장]
3부	17:00~17:30	참가자 네트워킹	

07 참가업체 신기술 프레스 브리핑

행사 개요

- 목적 : 2019서울모터쇼에 참가한 우수 중소기업의 신기술 관련 프레스 브리핑을 통해 홍보 기회 마련
- 일시 : 2019.4.11(월)~5(금) 11:00~12:00
※ 4.2(화)는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계로 제외
- 장소 : KINTEX 제2전시장 프레스센터
- 참가업체 : 15개 업체

브리핑 일정

시간	4.1(월)	4.3(수)	4.4(목)	4.5(금)
11:00~11:15	마이팀 (탄소소재)	엔앤드솔루션 (자동차주행차)	엔씨엠 (자전거공유)	팀와이퍼 (세차 서비스)
11:15~11:30	인에이블 (전기자동차)	카수리 (장비 서비스)	한컴MDS (주차공유)	올더타임 (차량 구독)
11:30~11:45	모빌테크 (자동차주행법)	마인디즈 (장비 서비스)	본칸셀링 (차량구매 및 보험 업)	오토업 (차량정보제공 플랫폼)
11:45~12:00	-	녹색드림 (태양광전지)	대창 (소형전기차)	로(LPG 개조 기술)

08 B2B 상담회

행사 개요

- 일시 : 2019.3.29(금)~4(일) 10:00~19:00
- 장소 : KINTEX 제1·2전시장 내 B2B Lounge(1전시장 1개소, 2전시장 1개소)
- 대상 : 국내 외 참가업체, 교류회 참석 희망업체
- 참가업체 : 3개국 12개사
- 국내업체 : 영화공업, 태광금속공업, 인맥, 인지컨트롤스, 한국후코꾸(5개사)
- 해외업체 : 2개국 7개업체
- 독일 : Hitachi Automotive Systems Espelkamp GmbH, WKW Erbsloh Automotive GmbH, Witte-Velbert GmbH Co. KG(3개사)
- 멕시코 : Katcon Korea, WTC San Luis Potosi, State of San Luis Potosi, State of Chihuahua(4개사)

업체별 주요 생산제품 현황

구 분	업체명	주요 생산제품(서비스)
국내 업체	영화공업	Oil Pump, Water Pump, Brake Disc & Drum 등
	태광금속공업	냉간단조제품, Inner(Outer) Ball Joint, Steering Gear Box 등
	인맥	Control Cable, Ignition Cable, Actuator, EPB (Electronic Parking Brake) 등
	인지컨트롤스	EMS Parts, Cooling Parts, Engineering Plastic, Switch & Sensor 등
해외 업체	한국후코꾸	Damper Pulley, Wiper Blade, Seal Pack 등
	Hitachi Automotive Systems Espelkamp GmbH	Ignition, Sensor, Fuel System 등
	WKW Erbsloh Automotive GmbH	Aluminum Trim, Roof Rail 등
	Witte-Velbert GmbH Co. KG	Locking, Latching 시스템 등
멕시코	Katcon Korea	Catalytic Converter, DOC, DPF, Exhaust System 등
	WTC San Luis Potosi	물류
	State of Chihuahua	
	State of San Luis Potosi	

B2B Matching Schedule

· 3.30(토)

시간	국내업체	해외업체
14:00~14:40	명화공업	Hitachi Automotive Systems Espelkamp GmbH
14:40~15:20		WKW Erbsloh Automotive GmbH

· 4.1(월)

시간	국내업체	해외업체
14:00~14:40	태양금속공업	멕시코 Katcon Korea
14:40~15:20		Hitachi Automotive Systems Espelkamp GmbH
15:30~16:10		독일 WKW Erbsloh Automotive GmbH
16:10~16:50		Witte-Velbert GmbH Co. KG
14:00~14:40	인택	독일 Hitachi Automotive Systems Espelkamp GmbH
14:40~15:20		멕시코 State of Chihuahua
15:20~16:00	인지 컨트롤스	멕시코 State of San Luis Potosi
15:20~16:00		독일 Hitachi Automotive Systems Espelkamp GmbH

· 4.5(금)

시간	국내업체	해외업체
10:00~10:40	한국 후코꾸	멕시코 State of Chihuahua
10:40~11:20		WTC San Luis Potosi

09 멕시코 투자설명회

행사 개요

- 일시 : 2019.4.2(화) 09:00~17:00
- 장소 : KINTEX 제1전시장 305호 세미나실
- 참석 : 한국·멕시코 자동차업계 관계자, 멕시코 주정부 등

프로그램 및 참가 현황

- 연사 : 13명
-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연사
08:30~09:00	등록	
09:00~09:25	축사 및 개회사	김태년 전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Bruno Figueroa 대사 [주한 멕시코대사관]
09:25~10:10	기조 연설	Agustin Garcia 이사 [멕시코대외무역위원회] Fausto Cuevas 부회장 [멕시코자동차산업협회]
10:10~11:30	멕시코내 공적인 공급 체인	Richard Gobeil 부사장 [멕시코 치와와주]
	할리스코: 멕시코 4.0 산업의 리더	Sergio Rios 국장 [멕시코 할리스코주]
	산 루이스 포토시 내 투자 기회	Jose Luis Sanchez 국장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주]
	유카탄 지역의 비즈니스와 기회	Gilda Morlet 과장 [멕시코 유카탄주]

11:30~11:50	Coffee Break	
12:00~12:50	멕시코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OEM 제조사	서경환 프로젝트 매니저 [Katcon]
	멕시코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Paulina Gonzalez 이사 [American Industries]
	산업단지: 성공적인 부지 선정을 위한 핵심 요소	Jose Luis Benitez 매니저 [Amistad Industrial]
16:20~17:30	산업단지와 그린필드 투자의 장점	Itzayana Llorens [Artha Capital]
	멕시코 내 사업 가동: 다채롭고 지속가능한 능력	Mauricio Solana [Advance Real Estate]
	WTC 산업단지	Fernán Rodríguez 매니저 [WTC Industrial]
12:50~13:10	- 멕시코 내 사업을 위한 법률사항 - NAFTA에서 USMCA까지: 법률관련 영향과 주요 변동사	Gerardo Prado, Turenna Ramirez Ortiz [Sanchez Devanyan Abogados]
13:10~15:00	중 식	
15:00~17:00	행사 종료, B2B 만남	

10 자율주행자동차 시승행사

행사 개요

- 기간 : 2019.3.28(목)~4.7(일)
- 장소 : 컨텍스 제2전시장 5A홀 앞 ↔ 제2전시장 버스 정류장 인근
- 시승차량 : 언맨드솔루션 'With-us', 스프링클라우드 'Springcar'

브랜드	언맨드솔루션	스프링클라우드
차종	WITHUS	SPRINGCAR
사진		
승차인원	6인승 / 좌석3인 / 오퍼레이터 1인	15인승 / 좌석3인 / 오퍼레이터 8인
대수	1대	1대

운영결과

- 총 시승자 합계 : 3,512명
- 언맨드솔루션 : 777명, 스프링클라우드 : 2,735명
- * 2017년 자율주행차 시승자 대비 약 30배 증가

11 친환경차 시승행사

행사 개요

- 기간 : 2019.3.28(목)~4.7(일)
- 장소 : 코텍스 제2전시장 9홀 내부 및 외부 주변도로
- 주행코스
 - 일반 : 약 19km(9홀 주변도로)
 - 초소형 : 약 350m(하역장)
- 접수방식 : 사전신청 및 현장 선착순 접수
- 시승차량

브랜드	현대자동차		한국닛산	한국지엠
차종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LEAF	볼트 EV
사진				
승차인원	5인승 (시승자 포함 4인 가능)	5인승 (시승자 포함 4인 가능)	5인승 (시승자 포함 4인 가능)	5인승 (시승자 포함 4인 가능)
대수	1대	1대	1대	1대

브랜드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Renault
차종	니로EV	쏘울 부스터EV	SM3 Z. E.	TWIZY
사진				 초소형
승차인원	5인승 (시승자 포함 4인 가능)	5인승 (시승자 포함 4인 가능)	5인승 (시승자 포함 4인 가능)	1~2인승 (아이만 동승 가능)
대수	1대	1대	1대	2대

브랜드	파워프라자		마스타전기차	
차종	라보ev피스(전기트럭)	봉고ev피스(전기트럭)	MASTA-MINI	MASTA-VAN
사진	 소형	 소형	 초소형	 초소형
승차인원	2인승(시승자만 탑승)	3인승(시승자만 탑승)	2인승 (시승자 포함 2명 가능)	2인승 (시승자 포함 2명 가능)
대수	1대	1대	1대	1대

브랜드	세미시스코	캠시스	종합
차종	D2	CEVO-C	총 9개사 친환경 자동차 17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소형 8대 - 트럭 2대 - 일반승용 7대
사진	 초소형	 초소형	
승차인원	2인승(시승자만 탑승)	2인승(시승자만 탑승)	
대수	1대	1대	

운영결과

- 총 시승자 합계 : 1,119명
- 일반 차량 77명, 초소형 차량 345명

12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후원 및 수상작 전시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행사 개요

- 목적: 학생들이 자동차를 직접 설계, 제작하여 자동차기술을 습득하고 창의력을 키워 미래의 자동차 산업인을 양성
- 일시: 2018.8.17~19(3일간)
- 장소: 새만금군산자전거경기장
- 주최: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 주관: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조직위원회
- 주요내용: Baja 경기, Formula 경기, EV 경기, 기술부문 경연 등
- 참가: 96개 대학 184팀 2,430명(학생: 2,291명, 지도교수: 139명)
- 수상 결과

부문	수상내역	학교명	팀명
Baja 부문	Grand Prix	대림대학교	DAELIM NO.1
	금 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Team NSSUR
	은 상	영남대학교	YUSAE_Baja
		대림대학교	Dynamic D
	동 상	서영대학교	SeoyeongRacingTeam
		한남대학교	Dynamics
		창원대학교	S.K.I.D
Formula 부문	장려상	호원대학교 '2018-CIC_B2' 등 19개 팀	
	최우수상	국민대학교	KOOKMIN RACING F-18
	금 상	한국오토모티브컬리지	Carrozzeria
	은 상	국민대학교	KOOKMIN RACING KF-18
	동 상	충남대학교	WHEEL-4
		호서대학교	CHALLENGER-J
	장려상	공주대학교 'KUMA_Formula' 등 7개 팀	

EV 부문	최우수상	가천대학교	Team SCUD EV
	금 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P
	은 상	호남대학교	호미카
	동 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밭대학교	Das stern
		경남대학교	한미자동차연구회
기술 부문	장려상	국민대학교 'KUST_EV' 등 9개 팀	
	기 술	금 상	아주대학교 A-FA 600
		은 상	성균관대학교 HEVEN_T
		동 상	신한대학교 Team SHOT
	아 이 디 어	장려상	명지대학교 SES
		한동대학교	AMG
	디 자 인	금 상	호원대학교 2018_CIC_EV
		은 상	전남과학대학교 NEXT
		동 상	성균관대학교 HEVEN_E
		장려상	경희대학교 KHARS-FEV

- 기타: 베스트 팀워크상(팀), 공로자주대학교상(개), 우수여성연구자상(개), 올해의 디자인상(개), 발표대회(개) 선정 및 시상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우수작 전시

- 일시: 2019.3.28(목)~4.7(일)
- 장소: 칸텍스 제2전시장 9홀
- 전시차량

No.	수상 내역	학교명	팀명
1	Baja 그랑프리	대림대학교	DAELIM NO.1
2	Baja 금상	영남대학교	YUSAE_Baja
3	Formula 최우수상	국민대학교	KOOKMIN RACING F-18
4	Formule 금상	한국오토모티브컬리지	Carrozzeria
5	EV 최우수상	가천대학교	Team SCUD EV
6	EV 금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P
7	EV 은상	호남대학교	호미카
8	기술아이디어 금상	아주대학교	A-FA 600
9	디자인 금상	호원대학교	2018_CIC_EV

13 자동차안전 체험존

행사 개요

- 목적 : 서울모터쇼 관람객에게 자동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및 안전운전 및 경제운전에 대한 홍보
- 일시 : 2019.3.28(목)~4.7(일)
- 장소 :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 참여기관 및 구성
 - 협찬사 : 어린이교통안전교실 조성, 운영
 - 한국도로공사 : 안전띠 체험기 2종(화전형, 복합형)
 - 도로교통공단 : VR교통안전체험기 6기
 - 자동차안전연구원 : 안전도평가 충돌시험 차량 2대(엑스, K9) 전시

운영실적

- 체험인원 : 23,894명

일 자	안전띠체험기	VR교통안전체험기	어린이교통안전교실
3.28(목)	45	35	0
3.29(금)	320	140	325
3.30(토)	630	577	1,409
3.31(일)	2,250	946	1,270
4.1(월)	350	216	407
4.2(화)	340	128	539
4.3(수)	450	149	412
4.4(목)	700	209	578
4.5(금)	440	254	596
4.6(토)	2,800	741	1,602
4.7(일)	2,550	789	1,697
계	10,875	4,184	8,835

14 로봇과 함께하는 SW교육 페스티벌

행사 개요

- 목적
 - SW교사와 로봇관련 기업의 협업을 통한 양질의 로봇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교과과정 연동 코딩교육 체험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관련 기업이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마련
- 일시 : 2019.3.29(금)~4.7(일)
- 장소 : KINTEX 제2전시장 ROBOT ZONE
- 주관 : 한국교육기술정보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광운대학교, 초등컴퓨팅교사협회
- 참가 : 사전신청 20팀(학생100명, 교사20명), 현장 방문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프로그램 운영

- 1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
- 주요 프로그램

No.	행 사 명	주 요 내 용
1	카미봇과 함께하는 카미대첩	카미봇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적인물, 문화재, 사건, 지리요소를 알아보기
2	코두이노 자동차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생활 속 균형 감각의 필요성과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균형감각의 필요성을 인식
3	Dash와 dot과 함께 미세한지르기	대사와 뜻을 활용하여 친환경 발전소 만들기
4	역사인물과 함께 하는 태극기를 지켜라	카드코딩, 라인코딩 등 엔블러그 활동을 통해 로봇들과 친해지기
5	일랑일랑 초코파이와 함께 Make Fruit Pie	주변환경을 감지하고 조건에 따른 출력이 가능한 로봇 활용하기
6	반짝반짝 두루두루와 함께 별자리를 그려라	별자리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기반 체험활동을 통해 순차, 선택, 반복구조 이해하기
7	EV3! 여기 좀 도와줘	로봇의 작동원리와 다양한 모터를 익히며 재난 상황에서의 구조 문제 해결능력 기르기

8	오조봇으로 즐기는 논리 스포츠 보드게임	로봇과 센서를 활용하여 협동심 및 코딩개념 기르기
9	비트브릭 CubiMon과 함께하는 알고리즘 대결	미로판과 코딩카드를 활용하여 순차/반복/선택 알고리즘 알아보기
10	MRT 코코넛과 함께 코딩 왕국을 정복하라	로봇체합과 팀 미션 해결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컴퓨팅 사고력 기르기

· 인력운영 현황

- 각 프로그램마다 재휴업제 및 연구팀을 배치하여 운영
- 사전신청 20팀을 대상으로 순환형 학생 SW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3,301명에 강사를 집중 투입하고, 평일은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

행사명	업체명	연구팀	3.30 강사	평일 강사	운영 인력
키미봇	삼펍일사	태백SW교육연구회(강원)	6명	2명	3명
코두이노	코더블	같이교육SW연구회(인천)	6명	2명	3명
대시	마르시스	코딩정음(충북)	5명	2명	3명
터틀	로보메이션	FRESH Code(서울)	5명	2명	3명
초코파이	한국과학	SWEET(강원)	6명	2명	3명
뚜루뚜루	다글에듀	스확행(서울)	5명	2명	3명
EV3	퓨너스	SW놀이터(경기북부)	5명	2명	3명
오조봇	창의와교육	ATC경기남부팀(경기남부)	5명	2명	3명
비트브릭	헬로키스	대구미래교육연구회(대구)	7명	2명	3명
MRT	엠알티 인터테인먼트	SSEMS(충북)	4명	2명	3명
총 104명			54명	20명	30명

- 참가자 집계 : 총 4,335명

15 드론 체험존

행사 개요

- 목적 : '자동차와 드론의 융합'이라는 주제를 통해 드론 조종 및 제작, 드론코딩 콘텐츠 체험 제공
- 일시 : 2019.3.28(목)~4.7(일)
- 장소 : KINTEX 제1전시장
- 주관 : 외우미래기술

체험존 조성 및 운영

- 드론 조종체험(뉴스드론)
 - 별도 전용공간을 통해 드론조종법을 배우고, 낯선 응용한 운영으로 미션수행의 즐거움을 병행
 - 1일 5회 프로그램 운영 (1시간 단위)
 - 회당 평균 20~35인 이용
 - 누적 이용객수 1,500명 이상
- 드론 조립·코딩 교실
 - 10:00~12:00, 13:00~15:00 드론 조립 수업 진행(30분 간격, 1일 8회)
 - 15:00~18:00 드론 코딩 수업 진행(30분 간격, 1일 6회)
 - 회당 4~8인 이용
 - 누적 이용객수 800명 이상
- VR 체험관
 - 일당 120~200명 이용
 - 누적 이용객수 1,300명 이상
- 특수 드론 전시관
 - 산업용 드론
- 드론 판매부스
 - 드론체험존 내에 참가업체의 판매부스를 설치, 관람객 대상 판매

16 문화예술 공연

행사 개요

- 일시 : 2019.3.29(목) 11:00~17:00
- 장소 : KINTEX 제2전시장 야외광장(우천 시 제1전시장 로비)
- 추진목적
 - 관람객 대상으로 각종 공연을 마련하여 볼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
 - 모터쇼 현장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제공
- 관람객들을 유인하는 홍보수단으로 활용
- 추진방향
 - 인디밴드, 마술, 클래식 등 다양한 퍼포먼스 운영
 - 전 연령대가 공감 할 수 있는 공연
 - 모터쇼의 즐거움과 휴식 제공 차원에서 상시 공연

주요 프로그램

· 3.29(목)~4.2(화)

시간	3.29(금)	3.30(토)	3.31(일)	4.1(월)	4.2(화)
11:00~11:30			태권도 시범단		
12:00~12:30	홍창당청 (마술)	홍창당청 (마술)	위로 (밴드)	바네/서현 (보컬,댄스)	울림소리 (밴드)
12:30~13:00		태권도시범단 (우천취소)	위로 (밴드)	바네/서현 (보컬,댄스)	울림소리 (밴드)
13:00~13:30	갈리버 여행 인형극		갈리버 여행 인형극		
13:30~14:00		라운앙상블 (연주/실내)	비블라스트 (댄스)		
14:00~14:30	바네/서현 (보컬,댄스)	하모나이즈 (보컬)	하모나이즈 (보컬)	제프밴드 (연주)	올드앤뉴 (연주)
14:30~15:00	바네/서현 (보컬,댄스)	이상한집 (밴드/실내)	사슴 (난바발공연)	올드앤뉴 (연주)	m49 (보컬)
15:00~15:30	유은경 (연주)				

15:30~16:00	울림소리 (밴드)				
16:00~17:00	청소년 카바덴스 경연대회(실내)	청소년 카바덴스 경연대회			

· 4.3(수)~4.7(일)

시간	4.3(수)	4.4(목)	4.5(금)	4.6(토)	4.7(일)
11:00~11:30					
12:30~13:00	m49 (보컬)	연우주 (보컬)	라운앙상블 (연주)	홍창당청 (마술) 태권도 시범단	위로(밴드)
13:00~13:30				홍창당청 (마술)	김진산 (기타)
13:30~14:00				하모나이즈 (보컬)	하모나이즈 (보컬)
14:00~14:30	제프밴드 (밴드)	m49 (보컬)	바네/서현 (보컬,댄스)	캔디맨밴드 (밴드/실내)	비블라스트 (댄스)
14:30~15:00			일상장난들 (밴드)		
15:00~15:30	올드앤뉴 (연주)	제프밴드 (밴드)	하모나이즈 (보컬)		캔디맨밴드 (밴드)
15:30~16:00					갬블러크루 (댄스)
16:00~17:00				청소년카바덴스 경연대회(실내)	

- 학생 관람 확대를 위해 청소년 카바덴스 경연대회를 개최, 6팀 이상
- 대상 : 서현
- 금상 : 명지대학교 꽃동심
- 은상 : 명지대학교 달라이트
- 동상 : 경인교육대학교 인트로, 일산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비에스(팀)

추가 행사(타임슬라이스) 운영

-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하이테크 촬영기술 기반의 셀프 코스크 타임슬라이스 체험 운영(제1전시장 로비)
- ※ 타임슬라이스 : 특수 제작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체인처럼 배열해 동시에 찍어 연속적인 동작에서 한 순간의 정지, 주변의 움직임과 완전히 시간을 분리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촬영기법
- 평상시에는 기념촬영 및 체험영상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
- 전시기간 내 7,000명 이상
- SNS게정 업로드 및 해시태그 공유(인스타그램 350건, 페이스북 170건)
- 우천시에는 타임슬라이스 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공연 진행

IV 홍보 내역

01 홍보

01 홍보

기획 보도자료 집중 배포

- 전체 보도자료 배포건수 : 28건(행사기간 전 10건, 행사기간 중 18건)
- 세부 리스트

배포일	헤드라인
행사 기간 전(10건)	
1월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시회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 개최
3월 4일	2019서울모터쇼, 오는 3월 29일부터 열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3월 7일	2019서울모터쇼, 입장권 사전예매 개시
3월 10일	2019서울모터쇼,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콘퍼런스 개최
3월 14일	2019서울모터쇼, 친환경차 시승행사 개최
3월 21일	2019서울모터쇼 자율주행차 시승행사 개최
3월 22일	2019서울모터쇼 국제콘퍼런스와 세미나 연달아 개최
3월 24일	2019서울모터쇼 7개 테마관 선보인다
3월 25일	2019서울모터쇼 대중교통 이용하러 편리
3월 26일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 중심 변화 시도 개막식서 현대차, SK텔레콤, 자트코 키노트 스피치 진행
행사 기간 중(18건)	
3월 28일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 2019서울모터쇼 3월 29일 막 오른다
3월 29일	서울모터쇼 개막식서 모빌리티의 미래 제시, 현대차, SKT, 자트코 키노트 스피치 진행
3월 30일	2019서울모터쇼 미래 자동차 체험하세요
3월 31일	첫 주말 맞은 2019서울모터쇼 누적 관람객 25만 5천여명 전화대비 10%이상 증가
4월 1일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의 우수한 기술, 제품 적극 발굴 나선다 마이팀, 인에이블인드바세널, 모빌테크 참가해 브리핑 회차 진행
4월 1일	미래는 수소경제시대다, 2019서울모터쇼 수소에너지 특별홍보관 운영
4월 2일	2019서울모터쇼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 주제로 국제콘퍼런스 개최
4월 2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혁신성장과 수출위기 극복은 글로벌시장에 답이 있다

4월 3일	2019서울모터쇼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 세미나 개최
4월 3일	2019서울모터쇼 출품모형3대중 1대는 친환경자동차
4월 3일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의 우수한 기술, 제품 발굴 위해 브리핑 진행 '언맨드스루션, 카루런오일, 카랑, 녹색드림협동조합 참여'
4월 4일	2019서울모터쇼,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형 체험 프로그램 캠퍼링 운영
4월 4일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의 우수한 기술, 제품 발굴 위해 브리핑 진행 '엔씨셀, 한컴MDS, 차북, 대창모터스 참여'
4월 5일	'미래 수소차시대 열린다. 기술 극복, 균형적인 투트랙 정책 절실' 2019서울모터쇼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 개최
4월 5일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의 우수한 기술, 제품 발굴위해 브리핑 세션 '탑와이퍼, 울다타입, 오토업컴파니, 로탄'
4월 6일	2019서울모터쇼 비 예보 주말 날들이로 적격
4월 6일	매박 하루 앞둔 서울모터쇼, 구름 인파 몰려
4월 7일	막내년 2019서울모터쇼 관람객 62.8만 명 첫장

가시간담회 개최

· 개최 개요

- 일시 : 2019.3.4(월) 11:00~13:00
- 장소 : 더플라자 호텔 22F 다이아몬드룸
- 주최 :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1:00	프레스 등록	NFR
11:00~11:05	장내 정리, 가시간담회 개최 소개	아나운서
11:05~11:10	인사말	정만기 위원장
11:10~11:30	프레스 브리핑	김종찬 상무
11:30~11:50	질의응답	임원진
11:50~13:00	오찬	도시락

· 주요 내용 : 행사 개요, 특징, 부대행사 및 개선사항 등

제 목	주요내용
① 2019서울모터쇼 개요	
서울모터쇼의 역사	1995년 시작, 올해로 12회 맞은 서울모터쇼
국내 자동차산업 현황	국내 자동차생산 및 수출량 감소, 위기상황
글로벌모터쇼의 현황	전통적 모터쇼의 위상 약화 → CES 등 가전쇼로 무게 중심 이동
2017서울모터쇼 리뷰	참가업체 감소추세, 관람객 정체, 차별화 포인트 등
2019서울모터쇼 컨셉	2019서울모터쇼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2019서울모터쇼 개요	기간 및 장소, 전시규모, 주최 및 후원 등 소개

주제 및 키워주요 공개	포스터, TV CF 등
방향성 제시	Sustainable, Connected, Mobility 3개 키워드 통해 모빌리티로 재질개선 시도
② 2019서울모터쇼 특징	
특징 1)	전통적 제조분야 중심 → 지속가능한 에너지, 카넥티드, 모빌리티 등 확장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포괄하는 행사로 변화
특징 2)	전시장 전체를 7개 월드로 이루어진 테마관으로 구분
테마별 World 소개	특징, 참가업체, 신차 등
③ 기타	
부대행사 소개	국제 컨퍼런스, 자율주행차 시승행사, 친환경차 시승행사, 기타 부대행사(세미나 포함) 등
개선사항 안내	전시운영, 해외 바이어 네트워킹 확대 등

· 미디어 참가현황

- 총 117개 매체, 기자 124명 참석
- 2017서울모터쇼 대비 참석 규모 약 20% 증가

구 분	매체명	개
종합지	동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5개
경제지	매일경제, 디지탈타임즈,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9개
통신사	연합뉴스, 뉴스1, 연합뉴스(영문), 뉴스핌	6개
전문지	전자신문	1개
영자지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포스트, NNA, Korea Joongang daily	4개
온라인	EBN, 한경닷컴, 매경닷컴, 동아닷컴, 스포츠경향, 이뉴스투데이, 지디넷코리아, 쿠팡뉴스, 위클리지동차신문, 머니S, 아이뉴스24, 에나지경제, 메트로신문, 데일리안, 인사이트코리아, 헬조선, 데일리한국, 시사저널e, 위키리크스한국, 뉴데일리경제, 내외신문, 소브자경제신문, 프라이밍경제, 산경에너지, 스타데일리뉴스, 파이낸셜신문, nsp통신, 더코리아뉴스, 아크로맨, 지피코리아, 뉴스웍스, 일요서울, 티티엘뉴스, 비즈트리플, 산업경제뉴스, 아시아타임즈, 인더뉴스, 천지일보, 파이낸셜투데이, 시사오늘, UPI뉴스, 한국금융신문, 뉴스웨이, 미디어파인, 데일리한경, 부산일보, 신아일보, 교통여행신문, GO 뉴스, OSEN, IT조선, 뉴스데일리, 미디어원, 모타리온, 재경일보, 운송신문, BVL, 상용차경제신문, 민주신문	61개
전문지 (주간지)	교통뉴스, 교통정보신문, 전기신문, 건설교통환경신문, 글로벌오토뉴스, 글로벌오토뉴스, 교통환경타임즈	6개
자동차 전문지	온갖차, 카가이, 오트타임즈, 로드매거진, 모타리온, 데일리카, 오트투데이, 모토아, 모터매거진, (주)상용차정보, 오트카코리아, 카플릭, 탑라이더	16개
사진부	트로경제, 여성경제신문, 연합뉴스, 시사오늘, 박스경제TV, 시사포커스	6개

· 보도결과

· 지면기사 12건, 온라인 147건, 방송 2건 등 총 161건

구분	매체수
지면 기사	12건
온라인 기사	147건
방 송	2건
총 161건	

인터뷰 진행

· 인터뷰 내역(총 12건)

구분	매체명		
2019년 (12건)	로이더통신(TV) KBS MBC라디오 YTN사이언스	아리랑TV KBS라디오 연합뉴스TV KBS WORLD 라디오	SBS MBC YTN TBS 교통방송

참가업체 신기술 · 신제품 프레스 브리핑

· 4월 1일(월), 3일(수), 4일(목), 5일(금) 등 총 4회 진행

· 보도자료 4회 배포

· 참가기업 및 세부내용

일자	업체명	세부 내용
4월 1일	마이팀	탄소소재 전문기업, 모터사이클 부품과 가방 공개
4월 1일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세계 1위 전가스쿠터 브랜드 'NIL' 국내 총판, 신제품 2종 소개
4월 1일	모빌테크	자율주행 3차원 지도 및 인지 스타트업, 3차원 스캐닝 시스템 소개
4월 3일	엔앤드솔루션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5단계 완전자율주행서를 '위더스' 공개
4월 3일	카수리런오일	차량 소모품 O2O 기업, 배터리 및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소개
4월 3일	카랑	차량 경정비 O2O 기업, 서비스 및 솔루션 소개
4월 3일	녹색드림 협동조합	신재생 솔루션 조합, 미세먼지 줄이는 태양광 냉동트럭 소개
4월 4일	엔씨엠	모빌리티 웨어링 스타트업, 'MARY' 서비스 소개
4월 4일	한컴MDS	인텔리전트 융합 솔루션 기업, 자율주행 모형차 소개
4월 4일	차봇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보험 비교 솔루션 및 키오스크 소개
4월 4일	대창모터스	전기차 전문 브랜드, 화물형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3 공개
4월 5일	팀와이퍼	세차 스타트업, 와이퍼 세차장 관리 솔루션 소개
4월 5일	올더타임	차량구독 서비스 기업, MINI 차량 구독 서비스 '올더타임미니' 소개
4월 5일	오토윙컴퍼니	재제조 부품 조화 서비스 '오토윙' 소개
4월 5일	로턴	친환경 대체연료 솔루션 브랜드, 플리세이트 LPG 소개

VII 개최 성과 및 개선사항

- 01 개최 성과
- 02 향후 개선방향

01 개최 성과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업체 유치로 서울모터쇼 위상 제고

(2017년 194개 → 2019년 227개)

- 금번 서울모터쇼에 총 227개 업체가 참가하여 2017년 194개 업체 대비 15.5% 증가
 - 완성차브랜드 27개, 전자차 전문브랜드 7개, 자율주행 솔루션기업2개 등 참가신사 40종 포함 전시차량 총 270대 출품
- 기존 완성차, 부품업체 위주의 참가업체 유치 관행을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카넥티드, 모빌리티' 주제로 신규업체 다수 유치
 - 테슬라 서울모터쇼 최초 참가
 - 자율주행, 통신, 에너지, 스티어링 등 참가
 - 자율주행 '언벤드솔루션, 스포팅클라우드', 통신 'SKT'
 - 에너지 '한전, 한국동서발전, 녹색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 해외 국가관(영국, 독일, 체코, 멕시코) 참가

7개 테마관을 조성, 입체적이고 스토리 있는 전시관 구성

- 서울모터쇼 주제에 부합된 테마관(World) 구성, 운영
 - 'Sustainable-Connected-Mobility' 등 3개 핵심 주제를 포함한 총 7개의 테마관(오토메이커스 월드, 서스테인어블 월드, 카넥티드 월드, 모빌리티 월드, 오토파트 월드, 인터테리얼 파빌리온, 푸드테인먼트) 운영
 - Auto Makers World(브랜드별 신차, 콘셉트차, 친환경차 전시)
 - Sustainable World(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를 제시)
 - Connected World(지능화 및 초연결성 사회로 변모아가는 미래상 제시)
 - Mobility World(기존의 이동수단을 뛰어넘는 신개념의 모빌리티 서비스)
 - Auto Parts World(첨단 부품기술 및 제품 전시)
 - International Pavilion(자국의 자동차산업 홍보 및 바이어 구매 상담)
 - Food-tainment World(다양한 즐거움과 엔터테인먼트 제공)
- 각 테마관별 전장배너와 바닥 파이프스케이아웃 구분
- 관람객이 테마관을 쉽게 방문하거나 만남의 장소로 활용도록 안내블리마켓, 현황판 등도 차별화된 색상으로 표기

참가업체가 신기술과 신제품을 최초 공개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

- 참가업체 신기술, 신제품을 공개하는 개막식 '키노트 스피치' 콘셉트 최초 도입
 -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지트코코리아 3사가 자사의 첨단 기술소개
 -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통해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 될 것
 - 5G가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며 혁신을 선도할 것
 -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용연속기 신제품 소개
 - ※ '신기술, 신제품 최초 공개 → 언론과 바이어 관심 집중 → 키노트 스피치 참여 확대' 선순환 구조 정착
- 전시기간 중 강소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공개하는 '프레스 브리핑' 진행
 - 언벤드솔루션, 모빌테크, 자토티, 대창모터스, 루턴 등 15개사 진행
- 참가업체의 B2B 지원 확대
 - 독일, 멕시코 정부기관, 자동차관련 단체와 국내 부품업체간 B2B 교류
 - '자동차부품소재관 소속 기업과 자동차산업 일자리 재취업사업단, 광주그린카진흥원' 간 상호 정보교류
 - 전시장내 비즈니스 라운지(3개소) 등

미래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공유의 장 마련

-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개최
 - 4차 산업 혁명, 미래 모빌리티 등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현주와 이에 따른 자동차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자동차산업의 가치창출 변화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역할
 -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해 변화하는 기술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자동차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교육
 -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정책과 기술적 과제들
 - 미래 모빌리티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동차 디자인
 - Flying car로 변화할 미래 이동수단과 라이프스타일
- 미래 자동차산업을 조망하는 지식 공유 세미나 개최
 - ①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
 - 수소, 연료전지 등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동향 및 발전방향 제시
 - ②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 '혁신성장'과 수출유망국 북미는 글로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경제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글로벌 경쟁력 회복 방안 공유
 - '장관기 회담, 유관기관 자동차산업 회복 및 발전과제' 제시
 - ③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 세미나
 -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카넥티드카 등 모빌리티 혁명이 불러온 자동차산업의 혁신과 비전 공유
 - ④ '자율주행 표준화 포럼 국제표준' 세미나
 - 자율주행차 표준화 관련 현안 이슈 및 국제표준 동향 공유
 - ⑤ Smart Road&Smart Vehicle 2019
 - 미래 ITS와 자율주행 협력, ITS 정책, 기술, 동향 및 정보 교류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교육형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초·중·고 대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형 체험프로그램을 마련, 학생들의 단체 관람을 유도
- '드론체험코너, 2019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운영
- '자동차안전체험코너, 카 메이커스 어린이 체험' 코너 운영
- 음악 공연, 미술, 인형극, 태권도 시범,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진행(아와전시장)
- 가족 관람객을 위한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시승' 행사 운영
- 인벤트스루션 'WITHUS', 스포링클라우드 '스포링카' 자율주행 시승
- 현대 아이오닉 EV, 기아 니로 EV, 쉐보레 볼트 EV 등 전기차 시승

관람객 편의성 확대

- 입장권 종류 다양화
- 가족단위 관람객과 모터쇼 전 기간 관람객을 위한 '가족권, 전일권' 입장권을 판매
- 주말 관람객 대상 '입장권 + 셔틀버스 이용권'을 결합한 입장권을
'라이프스타일 힐렉, 여기아떼, 서울모터쇼 홈페이지'에서 판매
- 전시장 출입식 변경
- 참가업체 관계자 출입식을 기존 RFID(전자태그) 방식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경 운영
- 모바일 정보서비스 강화
- 모바일 킨텍스 앱을 통해 입장권 구매, 실시간 교통정보, 길찾기, 주차 정보 등 제공
- 전시장 내 휴게 서비스 제공
- 푸드데인먼트를 마련하여 관람객에게 휴게 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다양한 푸드 서비스 제공

02 향후 개선방향

참가업체 지원 확대

- 참가업체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최초 발표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
- 개막 키노트 스피치에 완성자, 부품 등 참가업체 신기술 발표 기회 제공
- 강소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발표를 위한 프레스 브리핑 지원
- 프레스브리핑 진행순서를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순차적으로 진행
- 참가업체 전략적 유치 방안 지속 운영
- 자기모터쇼 예산수립에 반영토록 참가비 인상계획 조그 인내하여 참가 유도
- 참가비 선납할인 제도 지속 운영
- 신기술, 신제품 출시 기업에 전략적 지원(인센티브 등)
- 참가업체 마케팅 지원 확대
- 완성차 브랜드의 현장 판매 활성화
- 부품업체의 B2B 활성화를 위한 전시관별 참가일수 조정방안 마련
- 방문자 관람 정보 등 BIG DATA를 수집·분석하여 참가업체에게 제공하고 마케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우수업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관람객 유치 확대

- 관람객 유치, 사전 집중홍보 전략 수립 시행
- 참가업체 유치 시부터 단계별 집중 홍보전략 수립
- 기획단계, 사전홍보단계, 집중홍보단계, 전시기간으로 구분 전개
- 온라인과 인인 미디어(유튜브 등)를 통한 디지털마케팅 강화
- 입장권 판매자를 다변화하여 경행을 통한 홍보 및 판매 확대 추구
- 비즈니스 트립 해외 포탈 등록 및 패키지상품을 통한 해외 관람객 유치
- 관람객 유치, 타켓 홍보활동 등 전개
- 참가업체 및 소속 협력업체 임직원 대상 유치 활동 강화
- 자동차산업연합회 소속 단체 및 기관, 임직원, 회원사 참여 확대
- 대학생·자취생·동자대·연계하여 대학생 단체 관람 유치 확대

- ‘프리미엄 티켓’ 제도 신설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
 - Early Entry, 가이드투어, 식사 제공, 회보집 및 기념품 증정 등
- 학생 단체관람 유치 확대 및 관광상품과 연계
 - 초등학교 봄소풍과 연계하여 서울모터쇼 전시장을 방문지로 유도
 - 자동차산업 진로교육의 장으로 활용
 - 신설 예정인 GTX 노선을 활용, 고양시 주변 관광지와 연계

관람객 대상 광고 및 홍보 개선

- 1인 유튜브 등 달라진 환경 변화에 적합한 홍보방식 활용
- 기존 광고매체보다는 SNS 등 온라인 매체에 주력

전시운영 개선 도모

- 개막식 운영방식 개선
 - 방문동선에 대한 참가업체 불만, 관람객 불편, 과잉의전 등을 해소하기 위해 VIP전시장 순시 간소화
- 프레스데이 브리핑 순서 및 운영방법 개선
 - 기존 1·2전시장 동시진행에 따른 불만해소를 위해 1~2전시장 순차적으로 진행
 - ※ 단, 2021서울모터쇼 프레스브리핑 신청업체 현황을 접수받아 공동주최기관과 협의 후 결정(2021년 1월)
 - 기존 1일 운영으로 시간 부족 시 평일을 활용한 일반인 대상 발표회 개최여부 검토
- 부대행사의 활성화 도모
 - 서울모터쇼 비참가업체도 포함한 기업세미나를 상시 개최
 -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행사는 확대 개최(문화예술공연 등)
 -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부대행사 마련
 - 노년층을 위한 하스트리 존 ‘자동차와 영희의 만남’ 특별전
 - 패션쇼, RC가 경진대회, 스마트모빌리티쇼, 카레이싱 토크쇼
 - 자동차 원리 교육, 그림그리기 대회 등
- 참가업체에 전시 운영 협조 요청
 - 출품차량 내부 공개, 부스 간 소음발생 문제 등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 유도

VIII 첨부 자료

- 01 2019서울모터쇼 보도자료 배포
- 02 2019서울모터쇼 광고 및 홍보물
- 03 전시장 내외부 홍보 사인물
- 04 각종 사진자료

서울모터쇼조직위, '2019서울모터쇼' 주제 선정 "Sustainable·Connected·Mobility"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

-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
- 2019서울모터쇼,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열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이하 조직위)는 지난 1월 25일(금) '서울모터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서울모터쇼' 주제를 "Sustainable·Connected·Mobility(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로 선정했다.

'Sustainable'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 'Connected'는 무한한 연결이 가능한 지능화된 자동차를 의미한다. 또한 'Mobility'는 기존 이동수단을 뛰어넘는 모빌리티의 새로운 비전을 의미한다.

아날 '서울모터쇼 자문위원회'에서는 '2019서울모터쇼'가 기존 서울모터쇼와 차별화된 모터쇼가 되기 위해 B2B 기능 강화, 가족형 체험형 부대행사 확대, 전문성 있는 콘퍼런스, 포럼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2019서울모터쇼에서는 승용차 및 상용차 등 완성차, 자동차 부품 및 소재 등 전통적인 제조분야 외에 자동차와 IT가 융합된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수소융합기술,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등의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여 자동차의 확장된 첨단기술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 모터쇼이자 국내 최대의 종합산업전시회다.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았으며,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2019서울모터쇼, 오는 3월 29일부터 열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2019.3.4)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 2019서울모터쇼, 오는 3월 29일부터 열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 현대, 메르세데스-벤츠, 테슬라 등 완성차 브랜드 20개 참가, 신차 22종 이상(잠정) 선보여
- SK텔레콤, 한국전력, 동서발전 등 IT 및 에너지 기업 최초 참가해 미래 자동차기술 공개
-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차 시승행사, 국제 콘퍼런스 등 부대행사도 풍부하게 마련

‘2019서울모터쇼’가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오는 3월 29일(금)부터 4월 7일(일)까지 총 열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이하 조직위)는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2019서울모터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날 조직위는 2019서울모터쇼의 주제를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으로 선정했다고 밝히며, 참가업체, 신차, 모터쇼 주제에 부합하는 테마관 구성 등 2019서울모터쇼의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모터쇼 주제는 세계적으로 모터쇼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점과 자동차산업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기술, 모빌리티 등 신산업과 미래 이동수단으로 변화해가는 추세를 고려한 결과라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이번 모터쇼에는 국내 6개(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제네시스), 수입 14개(닛산, 랜드로버, 렉서스, 마세라티,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비엔디블유, 시트로엥, 재규어, 토요타, 푸조, 포르쉐, 혼다, 테슬라) 등 총 20개 세계적 완성차 브랜드가 참가한다. 이중 테슬라모터스는 서울모터쇼 최초 참가다. 더불어 렉시스, 파워프라이자 등 국내의 전기차 브랜드 7개도 서울모터쇼와 함께한다.

전시 전체 차량 대수는 약 100여 대에 달하며, 신차는 잠정적으로 월드프리미어 2종(콘셉트카 1종 포함), 아시아프리미어 10종(콘셉트카 4종 포함), 코리아프리미어 10종 등 총 22종이 공개

예정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기술, 모빌리티 등 확장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모터쇼에는 완성차 업체, 부품 및 소재 기업 등 전통적인 제조분야 외의 파워프라이자, 렉시스 등 전기차 브랜드, SK텔레콤 등의 IT기업, 한국전력, 동서발전 등 에너지기업, 현대모비스, 유라코퍼레이션 등 부품업체 등 총 180개 자동차 유관기업들이 참가(최종 참가업체는 190개 내외로 추정)할 전망이다. 조직위는 이를 통해 완성차 중심의 서울모터쇼의 개념을 확장해 모빌리티소로 체질을 개선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모터쇼에는 국가관을 구성해 참여하는 나라가 늘어난다. 과거에는 독일, 멕시코, 체코 등이 국가관으로 참석했는데, 올해는 영국이 신규 참가한다. 국가관은 주정부 및 부품업체로 구성되며, 특히 한국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이들 기관 및 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2019서울모터쇼를 7개의 테마관으로 구성해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이라는 행사 주제에 부합하는 전시를 선보인단.

- ‘오토 메이커스 월드(Auto Makers World)’는 완성차 브랜드의 전시공간,
- ‘서스테이너블 월드(Sustainable World)’는 수소신기술 기술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통한 친환경적 진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 ‘커넥티드 월드(Connected World)’는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기술, 차량공유기술 등 초연결성 사회로 변화하는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
- ‘모빌리티 월드(Mobility World)’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드론, 로봇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보고, 이동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오토 파츠 월드(Auto Parts World)’에서는 내연기관 및 친환경, 자율주행 등에 적용되는 부품기술 및 제품 전시공간,
- ‘인터네셔널 파빌리온(International Pavilion)’은 외국 부품사 및 기관 소개 공간,
- ‘푸드-테이먼트 월드(Food-tainment World)’는 먹거리, 즐길거리와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관람객들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커넥티드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먼저, 서스테이너블 월드와 연계해 열리는 친환경차 시승행사는 체험자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킨텍스 제2전시장 주변도로를 주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체험 가능한 차량은 총 19대로 현대자동차의 코나 EV,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의 니로 EV, 소울 EV, 한국지엠의 볼트

EV, 닛산의 리프 등이다. 이어 카넥티드 월드와 연계해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자율주행차 시승행사는 언맨드슈루터선과 스프링클라우드와 협력해 진행되며, 서울모터쇼 기간 내내 킨텍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연결통로에서 체험할 수 있다. 최대 10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변속주행, 회파주행, 신호 준수 등 현존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대부분 경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모터쇼 주제 중 하나인 '카넥티드'를 중심으로 한 국제 콘퍼런스, 세미나도 마련된다. 먼저 국제 콘퍼런스는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Thinking Automobiles: The Future of Innovation)'를 주제로 4월 2일(화)에 개최된다. 빈프리트 베버(Winfried Weber) 독일 만하임응용과학대 응용경영연구소 소장, 스티븐 조프(Stephen Zoepf) 스탠퍼드대학교 자동차연구소 센터장,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 후센 압엘라티프(Housssem Abdellatif) TUV SUD 글로벌 자율주행사업 부문장, 리차드 정 한국자동차디자인협회 초대회장, 램코 버워드(Remco Verwoerd) PAL-V사 아시아 담당 부사장 등이 연사로 참가한다.

AI, 5G 등 IT와 자동차가 융합된 자율주행차, 카넥티드카 등 모빌리티 혁명이 불러올 자동차산업의 혁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4월 3일(수) 열린다. 주제는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 산업 세미나'이며 현대, SK텔레콤, KT 등이 참가해 기술현황과 향후 산업 트렌드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준비 중이며, 확장 시 홀메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서울모터쇼를 CES 등 해외 유명 전시회에 버금가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전시운영시스템도 혁신한다. 우선 2017서울모터쇼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킨텍스 앱(App)에 교통상황, 주차현황 등 실시간 전시정보가 확대되며, 출입 시스템도 개선된다. 또한 제1, 2전시장에 1개소씩 운영된 매표소를 각 2개소씩 두 배로 늘리며, 전시장 곳곳에 안내시설을 다수 설치해 관람객 혼잡을 줄일 것이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복합물 등 사전 예매 판매처를 확대하고, 수요 대응형 e-버스 등도 운영한다. 더불어 향후 서울모터쇼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관람객 전시성향 분석을 시스템도 운영한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홀수 해에 열리며, 2017년에는 약 6만 명이 전장을 방문하는 등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시회다.

2019서울모터쇼, 입장권 사전예매 개시(2019.3.7)

2019서울모터쇼, 입장권 사전예매 개시

- 옥션티켓에서 오는 27일(수)까지 2019서울모터쇼 입장권 사전예매 실시
- 사전예매 시 성인 및 초·중·고생 입장권 각각 1천5백 원 할인 혜택 제공
- 가족 관람객을 위한 3인권 및 4인권, 전일관람권 신선했다. 가격 부담 낮춰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정기간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 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는 오는 3월 29일(금)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개막하는 ‘2019서울모터쇼’의 입장권 사전예매를 시작한다.

‘2019서울모터쇼’ 입장권 가격은 일반인 및 대학생 2만 원, 초·중·고생은 7천 원이며, 27일(수)까지 옥션티켓에서 진행되는 사전예매를 이용하면 각각 1천5백 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전예매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3인권과 4인권, 전일관람권이 신설된다. 가족 방문객을 위한 3인권과 4인권은 성인 2명과 초·중·고생 1~2인 기준으로 장사가 대비 25% 할인해 각각 2만 원, 2만5천 원에 판매된다. 모터쇼 기간 총 열흘 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전일관람권 가격은 3만 원이다. 옥션티켓을 통해 구매한 입장권은 옥션 앱 또는 현장 매표소에서 입장권으로 교환해 전시장으로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매 기간 이후에는 할인이 없는 정상가격으로 판매되며, 29일(금) 개막일부터는 옥션티켓, 현장 매표소와 킨텍스 앱에서도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전시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입장마감은 오후 6시다. (개막일인 29일은 오전 12시부터 입장 가능)

서울모터쇼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모터쇼는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열리며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신산업과 미래 자동차 기술을 살펴볼 수 있도록 7개 테마관으로

구성했다"며 "특히 올해는 가족 관람객을 위한 3인권과 4인권을 신설했으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인 이상의 단체관람객을 위한 사전예매는 옥션티켓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또한 조직위는 공유버스 플랫폼 위즈돔과 협약을 통해 전용셔틀버스를 운행하며, e버스 앱을 통해 셔틀버스 패키지 상품도 예매할 수 있다. 이외 기업 및 공무원 복지들에서도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2019서울모터쇼,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개최

- 4월 2일(화) 오전 10시,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려
-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자동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6명의 전문가와 공유, 소통의 장
- 참가접수는 3월 22일(금)까지 서울모터쇼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모집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정만기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 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는 3월 29일(금) 개막하는 '2019서울모터쇼' 기간 중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Thinking Automobiles: The Future of Innovation)'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4월 2일(화) 오전 10시부터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유명 연사들이 참여해 열린다. 행사는 ▲ 미래 모빌리티·자동차 기술 및 트렌드 ▲ 인재육성·디자인·라이프 스타일 등 다채롭게 구성되며,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자동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①기조연설자로 독일 만하임응용과학대 응용경영연구소 소장 빈프리트 베버(Winfried Weber)가 참가하며, 이어 ②스텐포드대학 자동차연구소 센터장 스티븐 조프(Stephen Zopf), ③국민대학교 총장 유지수, ④TUV SUD 글로벌 자율주행 사업 부문장 후센 압델라티프(Houssein Abdellatif), ⑤한국자동차디자인협회 초대회장 리차드 정, ⑥PAL-V사 아시아 담당 부사장 람코 버워드(Remco Verwoerd) 등 총 6명 연사들이 자리를 빛낸다.

1 기조연설자인 빈프리트 베버는 만하임대학의 경제학자이자 사회과학자로 독일 산업생태계 전문가로 유명하다. 그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수많은 중견기업 경영자와 오너들에게 기업 경영전략에 대한 컨설팅 사례를 토대로 '자동차 산업의 가치 창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전기차(EV), 직접 운전하며 성능을 체험하세요! 2019서울모터쇼, 친환경차 시승행사 개최

- 3월 29일(금)부터 4월 7일(일)까지 총 열흘간, 킨텍스 제2전시장 9홀에서 개최
- 전기차 18대 참가해 총 1.9km 코스를 참가자가 직접 시승전
- 전기차 구매를 고려중인 소비자나 자녀를 위한 체험 학습의 기회로 일일 300여 명 이상 시승 가능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정만기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 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는 오는 3월 29일(금)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개최하는 ‘2019서울모터쇼 기간 내 친환경차 시승행사를 개최한다.

본 시승행사는 서울모터쇼의 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스테이너블 월드(Sustainable world)’와 연계해 운영되며 3월 29일(금)부터 4월 7일(일)까지 총 열흘간, 참가자들이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내부와 외부 주변도로 약 1.9km(초소형 전기차는 500m)를 직접 운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총 9개 브랜드의 전기차 18대가 시승행사에 참가하는 등 국내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차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일반 전기차는

-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 기아자동차의 니로 EV, 소울 EV,
- 파워프라이드의 라보ev피스, 볼고ev피스,
- 르노삼성의 SM3 Z.E,
- 한국지엠의 볼트 EV,
- 닛산의 LEAF,
- 세미시스코의 D2

2 스티븐 조프 센터장은 BMW와 포드의 자동차 엔지니어 출신으로 약 15년간 미국 교통부를 위한 국가 차량 에너지 개발 정책을 개발한 바 있다. 특히 인간의 이동성의 미래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기술 트렌드 전문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해 변화하는 기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3 유지수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교육자다. 국민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자동차융합대학’이라는 자동차 관련 단과대학을 개설했으며, 이곳에서는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자동차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자동차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교육’을 주제로 발표한다.

4 후섭 압델라티프 부문장은 글로벌 인증기관 TUV SUD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 및 보안규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정책과 기술적 과제들’을 주제로 연설한다.

5 이어 리처드 정 회장은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디자이너들이 모인 한국자동차디자인협회의 초대회장으로 융합디자이너기술 전문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래 모빌리티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 발표한다.

6 마지막으로 PAL-V사의 램코 버워드 부사장은 ‘Flying car로 변화할 미래 이동수단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PAL-V사는 세계 최초로 플라잉카를 개발하고 시판에 성공한 업체로, 미래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플라잉카의 상용화의 선두주자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산한 하늘을 나는 차를 통한 이동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참가신청은 오는 22일(금)까지 서울모터쇼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총 1천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성인 3만원, 학생(대학생 포함) 2만 원이며, 10인 이상의 단체는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특전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발표 자료집과 1만 원 상당 서울모터쇼 입장권(1매)을 현장에서 증정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모터쇼 국제컨퍼런스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2019서울모터쇼의 주제인 커넥티드와 모빌리티를 인문학적 측면에서 보여줌으로써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자동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준비했다”며 “자동차 산업 및 산업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가치가 있는 자리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5서울모터쇼부터 시작된 국제 컨퍼런스는 매회 1천 명 이상이 참가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관련 행사로 자리 잡았다.

초소형 전기차로는

- 마스타자동차의 MASTA,
- 르노삼성의 TWIZY,
- 캄시스의 CEVO-C가 참가한다.

시승차는 서울모터쇼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신청과 행사장 내 현장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일일 시승 가능인원은 약 300여 명이다. 단, 동승자를 제외한 운전자는 만 2세 이상 성인으로 운전면허는 필수며 탑승 전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부 차종의 경우 조건이 상이하다. 사전신청자는 시승 희망 일자와 탑승 차량 선택이 가능하나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현장신청자는 시승차량이 임의로 배정된다.

서울모터쇼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차 31,154대가 판매되며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맞아, 이번 모터쇼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승행사를 마련했다"며 "특히 이번 행사는 전기차를 직접 운전해볼 수 있어 차량 구매를 고려 중 인 소비자나 자녀들을 위한 체험학습 등 부모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화폐를 맞았다. 홀수 해에 열리며, 2017년에는 약 6만 명이 전시장을 방문하는 등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시회다.

2019서울모터쇼 자율주행차 시승행사 개최(2019.3.21)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킨텍스를 달린다 2019서울모터쇼, 자율주행차 시승행사 개최

- 3월 29일(금)~4월 7일(일) 총 열흘간, 킨텍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연결통로에서 개최
- 앤맨드솔루션 'WITHUS', 스프링클라우드 '스프링카' 등 5단계 완전 자율주행서를 체험 가능
- 시승구간은 400미터로, 정속주행, 변속주행 등 경험 가능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일반인도 탑승해볼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정민기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 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는 오는 3월 29일(금)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개막하는 '2019서울모터쇼' 기간 내 자율주행차 시승행사를 개최한다.

본 시승행사는 국내 자율주행솔루션 기업 '앤맨드솔루션'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및 운영 기업인 '스프링클라우드'와 협력해 진행되며, 서울모터쇼의 주제 중 하나인 '무한한 연결이 가능한 지능화된 자동차(Connected)'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운영되는 앤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서를 'WITHUS', 스프링클라우드의 자율주행서를 '스프링카'는 모두 운전자와 운전대가 없는 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 5단계 완전자율주행차량이다. (오퍼레이터는 탑승) 특히 앤맨드솔루션의 'WITHUS'는 2019서울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모델이다.

행사는 2019서울모터쇼 개최기간인 3월 29일(금)부터 4월 7일(일)까지 총 열흘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는 킨텍스 제1전시장 5층 앞과 제2전시장 분수대 앞에 마련된 부스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승구간은 킨텍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사이 약 400m이며, 정속주행, 변속주행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단, 현장상황에 따라 시연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모터쇼 관계자는 “2017서울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자율주행차 시승행사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운영기간과 체험인원을 대폭 늘렸다”며 “특히 사실상 무인자동차에 가까운 5단계 자율주행차를 시승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니, 서울모터쇼 방문 시 꼭 체험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택트솔루션은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으로 자율주행에서 가장 흔한 자동차분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농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솔루션 기술을 적용 개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독자 개발한 완전 자율주행 형태의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및 운영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MaaS(Mobility as a Service) 기반 통합 솔루션 제공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미들버스, 청소차, 카트 등 공공 복지 기반의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입장권은 일반인 및 대학생 1만 원, 초·중·고생은 7천 원이며, 27일(수)까지 옥션티켓 및 킨텍스 앱에서 진행되는 사전예매를 이용하면 각각 1천5백 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019서울모터쇼,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조망하는 국제 콘퍼런스와 세미나 연달아 개최

- 4월 2일(화)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개최
- 4월 3일(수)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 세미나 개최
- 4월 4일(목) 'Smart Road & Smart Vehicle 2019' 세미나 개최
- 4월 5일(금)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 개최
- 참가접수는 서울모터쇼 홈페이지에서 세미나별 신청 가능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정민기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 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는 오는 3월 29일(금)부터 4월 7일(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서울모터쇼' 기간 내 미래 자동차산업을 조망하는 국제 콘퍼런스와 세미나를 연달아 개최한다.

국제 콘퍼런스와 세미나는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 (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이라는 서울모터쇼 주제에 맞춰 진행된다. 4월 2일(화)에는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Thinking Automobiles: The Future of Innovation)’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리며, 4월 3일(수)에는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 4월 4일(목)은 ‘Smart Road&Smart Vehicle 2019’, 4월 5일(금)은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와 자동차산업’을 주제로 세미나가 마련된다. 행사 참가신청은 서울모터쇼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가능하다.

4월 2일에는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가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독일 만하임응용과학대 응용경영연구소 소장 빈프리트 베버(Winfried Weber), 스탠포드대학 자동차연구소 센터장 스티븐 조프(Stephen Zoepl), 국민대학교 총장 유지수, TÜV SÜD 글로벌 자율주행 사업 부문장 후셈 압헬라티프(Housseem Abdellatif), 한국자동차디자인협회 초대회장 리처드 정, PAL-V사 아시아 담당 부사장 렉코 버워드(Remco Verwoerd) 등 총 6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본 컨퍼런스는

- 미래 모빌리티·자동차 기술 및 트렌드
- 인재육성·디자인·라이프 스타일 등 다채롭게 구성되며,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자동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3일에는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 세미나가 킨텍스 제1전시장 21호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다. 본 세미나는 AI, 5G 등 IT기술과 융합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모빌리티 혁명이 불러올 자동차산업의 혁신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다. 세미나 참가기업 중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대응전략', KT는 '5G 기반 자율주행-커넥티드카', SK텔레콤은 '5G 기술로 진화하는 모빌리티'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4월 4일 열리는 'Smart Road&Smart Vehicle 2019' 세미나는 미래 ITS(지능형 교통체계)와 자율협력주행에 대한 정책, 기술, 동향 등을 살피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LG전자,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가하며 오전 10시부터 킨텍스 제1전시장 21호에서 개최된다.

4월 5일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가 킨텍스 제1전시장 212호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 한양대학교 이기형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 한국가스공사 이영철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세미나는 수소, 연료전지 등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동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궁극의 친환경차로 가기 위한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러진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서울모터쇼 기간 내 마련되는 컨퍼런스과 세미나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로 진화하고 있는 미래 자동차에 대한 동향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산학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입장권은 일반인 및 대학생 1만 원, 초·중·고생은 7천 원이며, 27일(수)까지 옥션닷컴 및 킨텍스 앱에서 진행되는 사전예매를 이용하면 각각 1천5백 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019서울모터쇼 7개 테마관 선보인다(2019.3.24)

2019서울모터쇼, 7개 테마관 선보인다 '미래 모빌리티'로 체질 개선 위한 토대 마련'

- 기존 완성차, 부품업체 위주의 전시관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7개 테마관으로 운영
- 서울모터쇼를 모빌리티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토대 마련, 참가업체 만족도 향상
 - ① 오토메이커스 월드(현대,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21개 브랜드 참가, 신차 36종 공개
 - ② 서스테이너블 월드(한국전력, 동서발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18개 업체 참가
 - ③ 커넥티드 월드(SK텔레콤, 연필드솔루션, 파울케이테크놀로지 등) 5개 업체 참가
 - ④ 모빌리티 월드(파워피자, 쉼스 등) 24개 업체 참가, 전기가 브랜드에서 신차 13종 공개
 - ⑤ 오토 파츠 월드(현대모비스, 유라크로파이전, 케이씨모터스 등) 82개 업체 참가
 - ⑥ 인터내셔널 파빌리온(독일, 영국, 체코, 멕시코 국) 1만 5천 400여 기업 등 40개 업체 참가
 - ⑦ 푸드-테인먼트 월드(네스프레스, 바디프랜드, 오레스트, 코지마 등) 6개 업체 참가
- ※ 출품차량 정보는 3월 22일 기준 잠정 수치
- ※ 7개 테마관 외 자동차제조산업관, 캠핑존 등 체험부스 등 전체 참가업체 227개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정민기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 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는 오는 3월 29일(금) 개막하는 2019서울모터쇼를 기존의 완성차, 부품업체 위주의 전시구조에서 탈피해 7개 테마관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직위는 2019서울모터쇼의 주제인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 (Sustainable-Connected Mobility)"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3개의 핵심 주제를 반영한 테마관을 포함해 총 7개의 테마관(오토메이커스 월드, 서스테이너블 월드, 커넥티드 월드, 모빌리티 월드, 오토 파츠 월드, 인터내셔널 파빌리온, 푸드-테인먼트 월드)으로 전시장을 꾸민다. 이는 완성차와 부품업체 위주의 서울모터쇼를 모빌리티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참가업체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관련 기업의 참가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2019서울모터쇼에 참가하는 업체는 227개에 달하며, 이는 참가업체 수로는 역대 최대급이다. 완성차 브랜드는 21개에 참가하며 월드 프리미어 5종, 아시아 프리미어 10종, 코리아 프리미어 21종 등 36종의 신차를 공개한다. 전기가 전문 브랜드는 개개 참여해 월드

프리미어 13층을 공개한다. 완성차, 전기차 전문 브랜드, 자율주행차 솔루션, 이륜차, 캠핑카 등 2019서울모터쇼에 출품되는 전체차량은 215종 약 270여 대에 달한다. (2019.3.22. 기준)

1 오토 메이커스 월드(Auto Makers World)

'오토 메이커스 월드'는 21개 완성차 브랜드의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국내 브랜드(6개)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제네시스가 참가하며, 해외 브랜드(15개)로는 닛산, 랜드로버, 렉서스, 마세라티,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비엠더블유, DS, 시트로엥, 재규어, 토요타, 포르쉐, 푸조, 혼다, 테슬라가 참가한다. 단, 테슬라는 전시장을 모빌리티 월드에 마련한다. 신차 36종을 포함해 154종의 차량이 전시되며, 차량 외에도 모터쇼 주제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를 살펴볼 수 있는 부품 및 신기술 전시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각 부스별로 이벤트, 차량 시승행사 등이 마련되어 볼거리와 더불어 즐길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2 서스테이너블 월드(Sustainable World)

'서스테이너블 월드'는 수소전기차 기술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이곳은 금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닌 수소산업에 대한 뛰어난 기술경쟁력과 정부의 의지를 알린 대중, 나아가 경쟁 국가들에 보여주겠다는 뜻이 담긴 테마관이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의 넥쏘와 수소 관련 기술 전시, 한국전력·한국동서발전 등의 에너지 기업, 현대 수소버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소속 기업 등 총 18개사가 참가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를 선보인다. 특히 동서발전은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소재로 사용하는 해수전지를 선보이며,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부스를 운영한다. 이외에 서스테이너블 월드에 연계해 전기차 18대를 관람객들이 시운전할 수 있는 친환경차 시승행사도 마련된다.

3 커넥티드 월드(Connected World)

'커넥티드 월드'는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기술, 차량공유기술 등 초연결성 사회로 변모하는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까지 5개 기업이 참가한다.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참가하며,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으로 안엔드솔루션, 피델케이테크놀로지 등도 함께한다. SK텔레콤은 5G HD맵(*고정밀 지도)과 양자보안기술(*정보를 빛의 단위 물질인 '광자'에 실어 통신해 해킹이 불가능한 차세대 암호기술) 등을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기술을 전시하며 모터쇼에 참가하는 주요 자동차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한다. 안엔드솔루션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차 시승행사에 참여하며, 부스에서는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서들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4 모빌리티 월드(Mobility World)

'모빌리티 월드'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드론, 로봇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보고, 이동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파워프라자, 캠퍼스, 세미나스퀘어 등 7개 전기차 브랜드와 더불어 IT메이커스협동조합 소속 드론업체 5개 등 총 24개 업체가 참가한다. 특히 세계 최초 공개 13층을 포함하여 30여 대의 전기차가 전시돼, 전기차 구매에 큰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곳에는 초등학교와 관련 업체가 공동 참여해 SW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로봇제작 및 교과과정 연동 코딩교육 체험 행사와 함께 드론 업체들이 주도해 진행되는 드론 조정 및 제작, 드론코딩 등 어린이 및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5 오토 파츠 월드(Auto Parts World)

'오토 파츠 월드'는 내연기관 및 친환경, 자율주행 등에 적용되는 부품기술 및 제품 전시공간이다. 현대모비스, 유라코퍼레이션, 자트코, 진한 등 국내외 부품 및 용품, 개조차 등 82개사가 참가한다. 이중 현대모비스는 전시관을 미래 모빌리티를 조망하더라란 주제로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친환경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며, 자트코는 전동화 시스템의 일환으로 개발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용 변속기의 컨셉트 모델을 서울모터쇼에는 처음으로 선보인다.

6 인터내셔널 파빌리온(International Pavilion)

'인터내셔널 파빌리온'은 B2B 역할을 수행하는 테마관으로 외국 부품사 및 기관들이 참여해 구성된다. 영국, 독일, 체코, 멕시코의 부품사 및 기관 40여개 참가하며, 해당 국가의 자동차산업 홍보 및 바이어와의 구매상담의 장이 마련된다.

7 푸드-테인먼트 월드(Food-tainment World)

'푸드-테인먼트 월드'는 과거 서울모터쇼가 넓은 전시면적에 비해 관람객들에게 제공했던 휴게공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해 구성된 테마관이다. 키탱스 제1, 2전시장 곳곳에 마련돼 관람객들이 먹거리, 즐길거리 및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2019서울모터쇼, 대중교통 이용하면 더욱 편리

- 평일 12만 대, 주말 2만대의 주차공간 확보
- 킨텍스 앱을 통해 입장권 구매 및 실시간 교통상황, 길찾기, 주차정보 제공
- 주말에는 입장권+셔틀버스 이용권을 결합된 패키지를 할팩, 여기아때, 서울모터쇼 홈페이지에서 판매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하는 ‘2019서울모터쇼’가 3월 29일(금) 개막한다. 올해는 약 65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정민기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 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교통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우선 조직위는 자기유을 이용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이 많은 서울모터쇼 특징을 반영해 주차공간을 다수 마련했다. 평일에는 킨텍스 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 총 12,785면, 방문자들이 물리는 주말에는 전시장 인근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최대 19,59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주차요금은 종일 기준으로 킨텍스 정규 주차장은 최대 만2천원, 임시주차장은 5천 원(선불)이며, 타기관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지하철 이용객은 3호선 대화역에서 하차하면 되며, 주말에는 대화역과 전시장 사이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광역버스는

- 강남 9700
- 공덕/당산/영등포 M7731, 870, 1500, 9707
- 서울역/광화문/신촌 M7106, 1000, 1100, 2000, 9714, 707
- 김포공항 56, 150, 7300
- 명동 9701

- 합정 200
- 성남/분당 8109
- 부천 1001 등을 이용하면 된다.

킨텍스 앱(App)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서울모터쇼를 즐길 수 있다. 앱에는 실시간 주차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주차비 결제기능과 자기유·대중교통·도보 길찾기 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본 앱을 통해 입장권 구매 시 전시장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다. 주변 맛집 정보 및 핫플레이스 할인쿠폰도 제공된다.

또한 주말에는 컬러 큐레이션 컴퍼니 스마트인피니의 ‘라이프스타일 할팩’을 통해 주말 입장권(3월 30~31일, 4월 6~7일)과 해당 관람일의 셔틀버스 왕복 승차권이 포함된 패키지를 판매한다. 패키지 구매 시 제공되는 쿠폰으로 e버스 앱에서 셔틀버스를 예약할 수 있다. 노선은 서울 수도권 거점의 잠실, 강남, 당산, 송내, 분당, 안양의 6개로 구성되며, 하루에 2개 일정(오전 10시 출발~오후 4시 귀가, 오후 1시 출발~오후 6시 귀가)으로 운행한다. 해당 패키지는 ‘여기아때’와 서울모터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위는 일산서부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불법 주차차 차량 단속, 정체구간 및 주요 진출로 교통 안내 등을 통해 전시장 인근 정체구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모터쇼 기간 중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킨텍스 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안내 정보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전시장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협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주년을 맞았다. 입장권은 일반인 및 대학생 1만 원, 초·중·고생은 7천 원이며, 27일(수)까지 옥스테라 및 킨텍스 앱에서 진행되는 사전예매를 이용하면 각각 1천5백 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 중심 변화 시도 개막식서 현대차, SK텔레콤, 자트코 키노트 스피치 진행(2019.3.26)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 중심으로 변화 시도 '개막식서 현대차, SK텔레콤, 자트코 키노트 스피치 진행'

- 개막식에서 참가업체 우수기술과 신제품 소개하는 키노트 스피치 도입
- 조직위 관계자, "CES와 같이 신제품, 신기술 발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장관기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 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는 오는 3월 29일(금) 열리는 2019서울모터쇼의 개막식을 참가업체가 중심이 되는 콘셉트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2019서울모터쇼의 개막식은 개막공연, 영상브리핑, 축하 등 행사성 위주의 부문은 축소하고 참가업체의 우수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키노트 스피치를 도입했다. 키노트 스피치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 총 3개의 업체가 10분씩 총 30분간 진행한다. 키노트 스피치 발표 기업은 서울모터쇼 참여업체의 신장을 받아 업체별 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1차 서류심사, 2차 사정위원회의 선정심사를 거쳐 선정된 바 있다.

키노트 스피치는 서울모터쇼에서 신기술, 신제품이 최초로 공개되면, 언론매체와 바이어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이로 인해 참가업체들의 최초 공개의지와 행태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조직위는 서울모터쇼를 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카넥티드',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빌리티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본 행사에서 윤경림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술본부 부사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을 공개하며, 박진호 SK텔레콤 ICT기술센터 CTO는 "5G가 열어가는 모빌리티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대니카 히로야스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사장은 차량 전동화 시스템의 일환으로 개발한 '미윌드 하이브리드 차량용 변속기'의 콘셉트 모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모빌리티쇼'로의 체질 개선을 개막식부터 보여주려 한다"며 "차기 서울모터쇼에서는 키노트 스피치에 참여하는 업체를 확대해, CES와 같이 신기술, 신제품 발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서울모터쇼 개막식은 29일 오전 10시 30분, 킨텍스 2전시장 6홀8에서 개최된다. 정부부처, 자동차업계 대표, 유관기관,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협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화폐를 맞았다. 입장권은 일반인 및 대학생 1만 원, 초·중·고생은 7천 원이며, 27일(수)까지 옥션닷컴 및 킨텍스 앱에서 진행되는 사전예매를 이용하면 각각 1천5백 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 2019서울모터쇼, 3월 29일 막 오른다

-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열흘간 개최
- 2개 완성차 브랜드서 신차 39종 공개, 전체 전시차량은 약 270여 대
- 미래 자동차산업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7개 테마관'으로 구성
-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세미나 다수 진행
- '테마파크형 모터쇼', '참가업체 중심의 모터쇼'를 위한 콘텐츠 마련

'2019서울모터쇼'가 28일(목)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29일(금)부터 다음달 7일(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막을 올린다. 총 참가업체는 227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모터쇼는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인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열린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는 이번 주제를 통해 현대 완성차와 부품업체 중심의 서울모터쇼를 전진적으로 모빌리티쇼를 목표로 변화시켜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모터쇼에는 2개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및 7개 전기차 전문 브랜드, 2개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 등이 선보이는 자동차 전시와 더불어 7개 테마관 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모터쇼 주제에 부합하는 관련 기업의 전시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1 2개 완성차 브랜드서 신차 39종 공개, 전체 전시차량은 약 270여 대
2019서울모터쇼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자동차, 쌍용, 제네시스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 6개, 닛산, DS, 랜드로버, 렉서스, 마세라티,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비엠더블유, 시트로엥, 재규어, 토요타, 푸조, 포르쉐, 혼다, 테슬라 등 수입 완성차 15개 등 총

2개 세계적 완성차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 중 테슬라는 서울모터쇼에 최초 참가다. 전기차 전문 브랜드는 SNK모터스, 마스타전기차, 인에이블인터내셔널(NIU), 파워프라자, 쉐미시스코, 캄시스, 대창모터스 등 7개가 참가한다.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은 앤앤드솔루션, 스프링클라우드 두 곳이다.

신차는 완성차 브랜드가 월드 프리미어 7종, 아시아 프리미어 10종, 코리아 프리미어 22종 등 총 39종을 선보이며, 전기차 전문 브랜드는 월드 프리미어 13종,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은 월드 프리미어 1종을 공개한다. 전체 출품차량은 219종 약 270여 대에 달한다.

2 미래 자동차산업을 한 눈에 '7개 테마관'으로 구성
2019서울모터쇼는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꾸러지는 기존의 전시형태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에 주제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3개의 핵심 주제를 반영한 테마관을 포함해 총 7개의 테마관으로 전시장을 꾸민다.

테마관은

- 완성차 브랜드 중심의 '오토 메이커스 월드(Auto Makers World)'
- 수소전기차 기술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 월드(Sustainable World)'
-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기술, 차량공유기술 등 초연결성 사회로 변화하는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는 '커넥티드 월드(Connected World)'
- 소형 전기차, 드론, 로봇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보고, 이동성을 체험할 수 있는 '모빌리티 월드(Mobility World)'
- 내연기관 및 친환경, 자율주행 등에 적용되는 부품기술 및 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오토 파츠 월드(Auto Parts World)'
-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홍보하고 B2B 역할을 수행하는 '인터내셔널 파빌리온(International Pavilion)'
- 먹거리, 즐길거리와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푸드-테인먼트 월드(Food-tainment World)'로 구성되며, 자동차제조산업관, 캠핑관 등을 포함해 총 227개 업체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3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세미나 다수 마련
올해 서울모터쇼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커넥티드·모빌리티 기업들의 전시뿐만 아니라 모터쇼 주제에 부합하는 국제 콘퍼런스와 세미나가 풍성하게 진행된다.

우선 4월 1일(월)에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관련 현안 이슈와 국제 상황 등을 공유하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국제표준 세미나'가 열리며, 2일(화)에는 사)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주관으로 '우리산업 전환기, 글로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5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도 진행된다. 같은 날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Thinking Automobiles: The Future of Innovation)'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도 열린다. 특히 본 행사는 국내 자동차 관련 최대 규모의 콘퍼런스로 독일 만하임응용과학대 응용경영연구소 소장 빈프리트 베버(Winfried Weber), 스탠포드대학 자동차연구소 센터장 스티븐 조프(Stephen Zoeppf), 국민대학교 총장 유지수, TÜV SÜD 글로벌 자율주행 사업 부문장 후센 압엘라티프(Houssem Abdellatif), 한국자동차지산인협회 초대회장 리처드 정, PAL-V사 아시아 담당 부사장 람코 버워드(Remco Verwoerd) 등 총 6명의 세계적인 연사가 참여한다.

이어 3일에는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모빌리티 혁명이 불러올 자동차산업의 혁신과 비전 공유하는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 세미나', 4일에는 미래의 ITS와 자율주행협력 ITS 정책, 기술, 동향 및 정보를 교류하는 'Smart Road & Smart Vehicle 2019' 세미나, 5일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가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모터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4 보고 즐기는 '테마파크형 모터쇼'
이번 서울모터쇼에는 교육과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형 프로그램이 다수 마련됐다. 열흘간의 전시기간 동안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연결통로에서는 '꿈의 무인차'로 불리는 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 5단계 완전자율주행차량을 탑승해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승행사'가 열리며, 제2전시장 9층에서는 총 18대의 전기자동차를 관람객들이 직접 운전해볼 수 있는 '친환경차 시승행사'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제1전시장에서는 아이들이 드론 조종 및 제작, 코딩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드론 체험 코너', '2019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제2전시장에서는 자동차 안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 체험 코너', 3D펜으로 자동차를 설계하고 디자인해볼 수 있는 '가-메이커스 어린이 체험'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이 행사기간 내내 상시 진행된다.

5 참가업체 중심의 모터쇼로 변화 시도
2019서울모터쇼는 개막식도 파격적 변화를 시도한다. 개막공연, 축하 등 행사성 위주의 부문은 축소하고 참가업체들이 직접 자신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키노트 스피치가 처음 도입된다. 올해는 공정화 심사를 거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주)가 기조연설을 맡으며, 향후 대회부터는 참가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가업체들을 위한 B2B 역할 증대를 위해 해외 국가관 참여를 확대했다.

올해는 영국(최초 참가), 독일, 멕시코, 체코의 정부기관 및 업체 40곳이 서울모터쇼에 국가관을 꾸리며, 투자 세미나 및 B2B세션 등을 마련해 운영한다.

장만기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은 "2019서울모터쇼는 서울모터쇼가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공개되는 모빌리티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의 원년"이며 "주제 일원화, 산업별 기술 트렌드를 전시기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모터쇼가 해외 유명 모터쇼와 가전쇼 못지않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투자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홀수 해에 열리며, 2017년에는 약 6만 명이 전시장을 방문하는 등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시회다.

2019서울모터쇼, 개막식에서 모빌리티의 미래 제시 현대차, SK텔레콤, 자트코 키노트 스피치 진행

- 정만기 위원장 “서울모터쇼, 신제품과 신기술이 발표되는 아시아 대표 전시회로 만들 것”
- 현대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통해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 될 것
- SK텔레콤 “5G가 시간과 장소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며 혁신을 선도할 것”
- 자트코코리아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용 변속기” 신제품 소개
- 2019서울모터쇼, 3월 29일(금)부터 대장정 시작, 오는 4월 7일(월) 폐막

‘2019서울모터쇼’가 29일 오전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내달 7일까지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흘간 열린다. 올해 모터쇼는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에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인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열린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정만기 위원장(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개막식에서 “앞으로 서울모터쇼를 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에 관한 신기술과 신제품을 발표하는 대표적 전시회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며, “‘키노트 스피치’를 도입해 개막식에도 새로운 콘셉트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은 개막공연, 영상브리핑, 축하 등 행사성 위주의 부문은 축소하고 참가업체의 우수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키노트 스피치로 펼쳐졌다. 키노트 스피치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 총 3개의 업체가 10분씩 총 30분간 진행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윤경림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 부사장은 글린 모빌리티(친환경차를 통한 지속가능성 추구), 프리덤 인 모빌리티(자율주행을 통한 모빌리티 경험 혁신), 커넥티드 모빌리티(커넥티드 기반 사용자 편의 향상) 3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키노트 스피치 주제로 삼고 현대차그룹의 미래 자동차 산업 비전을 제시했다. 윤경림 부사장은

“차량과 서비스가 통합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자가 되겠다”라며 “이를 통해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키노트 연사로 나선 박진호 SK텔레콤 ICT기술센터장은 ‘5G가 열아가는 모빌리티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5G는 4G보다 최대 전송속도가 20배 빠르고 전송지연은 100분의 1 수준으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며 “SK텔레콤은 5G 네트워크에 연결된 A비서가 출근길을 안내하고, 시간과 장소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등 우리 생활 혁신의 방향을 선도해갈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대니카 히로야스 자트코코리아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은 100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나, 자트코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모든 변화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서울모터쇼에서 공개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용 변속기’는 최고의 엔진 효율을 자랑하는 CVT(무단변속기)와 자전력 모터-발전기로 조합되어 연비향상이 가능하다”고 신제품을 소개했다.

한편, 2019서울모터쇼 개막식에는 정부부처, 자동차업계 대표, 유관기관,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약 400명이 참석했다.

2019서울모터쇼, 미래 자동차 체험하세요!

- 꿈의 무인차로 불리는 5단계 완전자율주행차량 시승 가능
- 친환경차 시승행사에 총 9개 브랜드의 전기차 18대 참가, 참여자 직접 운전 가능
- 자동차 안전체험 코너에서는 참가자가 교통안전의 중요성 몸소 느낄 수 있어

오는 4월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서울모터쇼'에는 자동차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과 놀이 등을 통해 미래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연결통로에 마련된 자율주행차 시승 행사장에서는 꿈의 무인차로 불리는 5단계 완전자율주행차량을 타볼 수 있다. 본 시승행사는 국내 자율주행솔루션 기업 '인벤드솔루션'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및 운영 기업인 '스프링클라우드'와 협력해 진행되며, 서울모터쇼의 주제 중 하나인 '무한한 연결이 가능한 지능화된 자동차(Connected)'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전시기간 내내 1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단위로 운영되며 시승구간은 킨텍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사이 약 400m다. 우선 시 자율주행차 시승은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제2전시장 9홀에서는 '친환경차 시승행사', '자동차 안전체험', '카-메이커스'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된다.

서울모터쇼의 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차 시승행사에는 총 9개 브랜드의 전기차 18대가 시승행사에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내부와 외부 주변도로 약 1.9km(초소형 전기차는 500m)를 직접 운전할 수

있다. 시승참가는 서울모터쇼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신청과 행사장 내 현장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일일 시승 가능인원은 약 300여 명이다. 단, 동승자를 제외한 운전자는 만 21세 이상 성인으로 운전면허는 필수며 답승 전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체험 코너는 자동차 사고 경각심 고취, 안전운전 및 경제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벨트 시뮬레이터, VR 교통안전 체험,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여자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다. 특히 '로봇카폴리와 함께하는 현대자동차 교통안전교실'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카-메이커스 체험 코너에서는 3D펜으로 자동차 디자인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고, 종이로 자동차 모형을 만드는 자동차 페이퍼 아트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VR 레이스 코너에서는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제1전시장 Mobility World에서는 '드론 체험 코너', '2019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등이 진행된다. 드론 체험 코너는 '자동차와 드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운영되며 드론 조종 및 드론 코딩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2019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로봇제작 체험, 교과과정과 연동된 코딩교육을 진행한다.

2019서울모터쇼는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3개의 핵심 주제를 반영한 테마관을 포함해 총 7개의 테마관으로 전시장을 꾸몄다.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첫 주말 맞은 2019서울모터쇼 누적 관람객 25만5천여 명(2019.3.31)

첫 주말 맞은 2019서울모터쇼, 누적 관람객 25만5천여 명 ‘전회 대비 10% 이상 증가’

- 29일(금) 3만4천여 명, 30일(토) 10만1천여 명, 31일(일) 12만 명(잠정) 행사장 찾아
- 모빌리티쇼로의 변화 시도, 전 대회 대비 10% 이상 늘어난 수치
- 신차, 신기술, 신제품 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형 콘텐츠 등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며
- 오는 4월 7일(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려

지난 3월 29일 개막한 '2019서울모터쇼'가 이동수단의 미래를 만나러 온 관람객들로 성황이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는 개막일인 29일에 3만4천여 명, 첫 주말인 30일과 31일에 각각 10만1천여 명, 12만 명(잠정)이 찾아 누적 관람객 수가 25만5천여 명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31일 2시 기준 잠정 예상치) 이는 2017서울모터쇼 대비 1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조직위 측은 관람객 수 증가 이유를 2019서울모터쇼가 ①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신기술·신제품 등으로 전환하는 등 모빌리티쇼로의 변화를 시도했고 ②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차, 콘셉트카 등 풍성한 볼거리, ③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차 시승 등 체험형 콘텐츠, ④문화예술공연, 먹거리, 게임, 안전체험 등 가족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 설명했다.

조직위는 자가용을 이용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이 많은 서울모터쇼 특징을 반영해 주차공간을 다수 마련했다. 평일에는 킨텍스 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 약 1만3천 대의 주차공간, 방문자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전시장 인근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약 2만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또 조직위는 일산서부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불법 주차차 차량 단속, 정체구간 및 주요 진출로 교통 안내 등을 통해 전시장 인근 정체구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킨텍스 앱(App)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서울모터쇼를 즐길 수 있다. 앱에는 실시간 주차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주차비 결제기능과 자가용·대중교통·도보 길찾기 기능도 제공한다.

아이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친환경차 시승을 경험한 이정실(여/서울/35세)씨는 “전기차를 처음 탔는데, 너무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아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며 “모터쇼라고 해서 자동차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체험행사도 많아서 다음 모터쇼에도 꼭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개최된 2019서울모터쇼는 오는 4월 7일(일)까지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다.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의 우수한 기술·제품 적극 발굴 나선다 '마이팀·인에이블인터내셔널·모빌테크 참가해 브리핑 1회차 진행'

● 서울모터쇼 참가업체들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알리기 위해 브리핑 세션 마련

- ① 탄소소재 전문기업 마이팀, 탄소섬유 파츠 개발 기술력 기반으로 패션분야까지 확장
- ② 세계 1위 전기스쿠터 NIU, 인에이블인터내셔널 통해 국내 첫 선
- ③ 모빌테크, 자체기술로 개발한 3차원 스캐닝 시스템 '레플리카 시리즈' 첫 공개

'2019서울모터쇼'가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이달 7일까지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자율주행, 부품소재,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업체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 등을 알리기 위해 '프레스 브리핑'을 진행했다. 본 행사는 향후 서울모터쇼를 모빌리티쇼로 체질을 개선하고, 신제품과 신기술이 발표되는 전시회로 변화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프레스 브리핑은 모터쇼 기간 평일(화요일 제외) 오전 11시에 제2전시장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날 처음으로 진행된 브리핑에는

- 탄소소재 전문기업 '마이팀',
- 세계 1위 전기스쿠터 브랜드인 'NIU'를 국내 유통하는 '인에이블인터내셔널',
- 자율주행용 공간정보 응용 전문기업 '모빌테크'가 참가했다.

1 마이팀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제품을 디자인, 제조, 판매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이번 모터쇼에서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모터사이클 파츠와 기어를 공개했다. 우민우 마이팀 대표는 "마이팀은 탄소섬유 제품 제작에서 유통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복합재 상용화 기업으로, 현재 14종 이상의 모터사이클용 탄소섬유 개조 부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서울모터쇼에는 모터사이클용 제품

개발에서 습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섬유를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슬링백(벨트 형태의 끈으로 연결된 가방)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2 인에이블인터내셔널은 세계 1위 전기스쿠터 브랜드인 'NIU'라는 전기 스쿠터의 한국 공식 독점 에이전트로 이번 서울모터쇼를 통해 'NIU'의 국내 론칭과 N PRO, N CARGO 모델을 공개했다. 최재운 인에이블인터내셔널 영업사원은 "NIU 스쿠터는 전 세계에 40만 대 이상 판매되었고, 고객들의 운행거리는 10억 킬로미터 이상"이라며 "이번 서울모터쇼에서 첫 공개된 N PRO, N CARGO는 검증된 내구성과 뛰어난 성능, 감각적인 디자인을 지녀 도시의 모빌리티를 재정의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3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3차원 지도 및 인지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이번 모터쇼에서 자체기술로 개발한 3차원 스캐닝 시스템 '레플리카 시리즈'를 출품했다. 2017년 4월에 창업한 '모빌테크'는 2018년에 네이버와 현대자동차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융합기술, 정밀측위기술, 환경인지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통합 인지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김재승 모빌테크 대표는 "올해 2019년도에는 자율주행 통합인지 시스템에 대한 집중적 연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2020년부터는 CES에도 참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모터쇼조직위 관계자는 "서울모터쇼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제품 등을 보유한 기업들이 조명을 받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차기 모터쇼에는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신기술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협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미래는 수소경제사회다. 2019서울모터쇼 수소에너지 특별홍보관 운영(2019.4.1)

미래는 수소경제사회다! 2019서울모터쇼, '수소에너지 특별 홍보관' 운영

-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를 제시하는 '서스테이너블 월드' 테마관 운영
- 모빌리티 시장에서 수소에너지 역할과 중요성 소개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G필로스, 현대자동차 등이 참여, 경제 가치 및 미래 수소사회 전망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는 3월 29일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막한 '2019서울모터쇼'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를 제시하는 '수소에너지 특별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제전시장의 '서스테이너블 월드'에 위치한 수소에너지 특별 홍보관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에 따라 국내 수소산업의 뛰어난 기술경쟁력을 알만 대중과 해외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수소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대표적인 예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수소 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홍보관에는 수소얼라이언스를 비롯해 G필로스, 에이치엔파워, 소나무, 일진복합소재, MS이엔지, 효성, 프로파워, 하이리움산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두산퓨얼셀, 예스퓨얼셀, 경진티알엠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2040년 수소관련산업이 43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2040년 승용차 275만 대, 택시 8만 대, 버스 4만 대, 트럭 3만 대, 수소충전소 1,200곳,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 발전용 연료전지 15GW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 G필로스는 재생에너지 미활용전력 수소화(P2G) 시스템,
- 에이치엔파워·소나무는 3kW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용 LNG개질(LNG로 수소 생산) 기술
- 일진복합소재는 수소차용 저장용기 기술,
- MS이엔지는 MS다쓰노의 수소디스펜서(저장된 수소를 뽑아낼 수 있게 하는 기계),
- 프로파워는 지게차용 수소충전기술,
- 효성은 수소충전소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 경진티알엠은 인버터 칠러(냉각기),
- 하이리움산업은 수소 드론,
- 두산 퓨얼셀은 발전용 연료전지,
- 예스퓨얼셀은 건물용 연료전지,
-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는 초고압·초저온 실증시험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서스테이너블 월드에서 수소전기버스 시승행사를 진행했다. 또 제전시장에서는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체험하고, 수소 에너지로 구현되는 미래 수소 사회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 '넥소 빌리지(NEXO Village)'를 운영하고 있다. '넥소 빌리지'에서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과정과 넥소에서 배출한 깨끗한 물을 활용해 가꾼 친환경 정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모터쇼는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인 '지속 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 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개최했다. 2019서울모터쇼는 오는 4월 7일(일)까지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다.

2019서울모터쇼,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개최

- 4월 2일(화) 오전 10시 총 6명의 전문가 강연으로 구성, 자동차 혁신의 미래 논의
- 4차 산업혁명, 미래 모빌리티가 가져올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당면과제에 대한 의견 제시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는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19서울모터쇼 국제 콘퍼런스가 1,4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자동차 전공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2일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킥텍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 독일 만하임응용과학대 응용경영연구소 소장 ‘빈프리트 베버’
- 스탠포드대학 자동차연구소 센터장 ‘스티븐 조프’
- 국민대학교 총장 ‘유지수’
- TÜV SÜD 글로벌 자율주행 사업 부문장 ‘후셈 압델라티프’
- 한국자동차디자인협회 회장 ‘리처드 정’
- PAL-V 아시아 담당 부사장 ‘맬코 버워드’가 발표자로 나서 4차 산업 혁명, 미래 모빌리티 등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현주소와 이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조 연설자인 빈프리트 베버 소장은 자동차산업의 가치창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자동차산업의 가치창출 방식 변화의 요인으로 핵심기술 및 기업의 전략적 변화를 꼽으며, 기업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과거 사업 방식으로부터의 과감한 탈피와 함께 기존 제조 기술 노하우의 고도화, 품질만이 아닌 제품의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고민 등 변화된 가치에 맞는 기업의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데이터를 무기로 제조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있으나, 데이터 기반 산업 전문가 부족,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위협도 있다고 말하며, 다른 산업의 전문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스스로 적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티븐 조프 스탠포드대학 자동차연구소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해 변화하는 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자동차산업 트렌드의 변화는 구매방식(개인구매→모빌리티 서비스), 구동 방식(내연기관→전기차), 운전자(운전자→자율주행)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같은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사는 지속 가능한(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교통수단, 차량 이용방식의 변화(자동차 공유 서비스), 새로운 수요(모빌리티 서비스의 다양화), 제도적 준비, 모빌리티 메가 트렌드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대학교 유지수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자동차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전공과 진출할 분야에 따라 학생들이 배워야 할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과 이를 적용해야 할 대상 분야는 다양하다고 설명하며, 각 분야에 따라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의 예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 가이드를 제시했다. 유지수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생들의 집중, 몰입,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업이 가장 원하는 인물은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지닌 인재라고 강조했다.

후셈 압델라티프 부문장은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정책과 기술적 과제들’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동화와 연결성 시대의 도래로 발생할 자동차 안전기준 분야의 변화와 대응과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차량 제어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자동차 안전기준도 지속해서 변화, 보완됨에 따라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판매를 위한 자동차 제조사의 탄력적 대응체계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자율주행 단계의 고도화로 차량 시스템이 더욱 복잡해지고 안전기준도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 시 준수할 안전기준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출시 후에도 해킹, 차량 안전 관련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단발성의 점검이 아닌 지속적 사후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정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동차 디자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자율 주행기술, 자율인타력,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가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이지만, 이러한 기술적 통합으로 야기될 우리의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혁신 성장과 수출위기 극복은 글로벌시장에 답이 있다

- 제5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개최...전문가 150여 명 대응책 모색
- 국내시장의 한계, 80조 달러의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해야

사단법인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회장 윤원식, 이하 경쟁력포럼)은 2019서울모터쇼가 열리고 있는 컨텍스에서 4월 2일, '혁신성장, 글로벌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150여 명의 경제계, 학계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최근 세계경기의 하강이 심화되고 미중간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의 발전방향과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모색하고 혁신성장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캐나다 및 미국의 글로벌 비즈니스리더를 초청해 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창업 성공신화를 통한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서울모터쇼와 연계해 개최하여,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주력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 기조연설 :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회복 및 발전제
- 발표자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해외생산포함 우리 자동차의 세계시장점유율은 2014년 9.9%에서 2018년 8.1%로, 생산대수는 2015년 896만 대에서 2018년엔 809만 대로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히 그는 디자인 변혁, 미래의 디자인이냐 해야 할 일에 관해 설명하며 디자인을 통해 접근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로 플라잉카를 개발·시판에 성공하여 플라잉카 상용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PAL-V사의 램코 버워드 부사장이 'Flying car로 변화할 미래 이동 수단과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주제로 PAL-V 플라잉카 개발에 적용된 혁신과 첨단 기술 그리고 플라잉카가 가까운 미래의 통근, 여행 등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불려를 혁명적 변화에 대해 제시하여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한편, 4월 3일에는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 세미나가 컨텍스 제1전시장 211호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다. 세미나 참가기업 중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대응전략', KT는 '5G 기반 자율주행-카넥티드카', SK텔레콤은 '5G 기술로 진화하는 모빌리티'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4월 5일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가 컨텍스 제1전시장 212호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 한양대학교 이기형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 한국가스공사 이영철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수소, 연료전지 등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동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중국의 친환경차로 가기 위한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줄어들었고, 2003년 이후 5위를 차지하던 자동차생산국 순위도 지난해에는 7위로 내려앉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①종합 기술경쟁력이 일본·독일 등의 88% 수준으로 연구개발이 취약하고,
②고비용·자생산성 생산구조, ③임금구조와 노동유연성 부족, ④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안전규제 도입으로 큰 부담이 불가피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최근 세계 자동차시장 전체 속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은 폭발적 성장세를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혁신으로 자율주행시스템 비용이 하락하면서 자율주행차 대중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2020년경부터 자율주행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5단계 중 2~3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2020년경 초기에는 4단계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차 시장이 미국에서 먼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대수 기준으로도 2025년 60만 대, 2035년 2,100만 대(HIS), 2025년 전체 신차 중 7%, 2035년에는 49%가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PwC)했다. 이어 자동차 전장부품의 원가비중이 현재의 40%에서 완전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는 경우에는 80%에 이를 전망으로 2035년 완전자율주행 1조 불을 포함하여 전체 전장부품 시장도 1조 4,700억 불로 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세계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소차는 세계를 주도하는 2중 전략으로 정부가 기술별 중립성과 개방성을 견지하며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자율주행차는 부품업체, 스타트업 등의 기술혁신과 완성차 업체의 M&A로 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므로 기술창업과 네트워킹 확산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은 일종의 제약조건이므로 이를 극복할 생산성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연구개발 전문기업, 생산전문기업 육성 등 고비용, 고효율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등 생산체제의 정보화, 자동화, 개별화도 기업별 실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국인 인턴제 도입 등 급박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제시했다.

끝으로 자동차 산업관련 각종 규제의 영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추진하기 위해, 업계, 학계 및 연구계, 관계, 정계 등이 참석하는 포럼을 구성해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 1) 우리경제 버팀목인 수출력,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 발표자: 김상목 KOTRA경제통상협력본부장

김상목 KOTRA경제협력본부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첫 6천억 불을 달성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었으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둔화, 신보호주의 확산 등 대외여건 속에 반도체 단가, 유가하락 등 경기적 요인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이후에는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제적 대응으로 수출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 구조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적인 저성장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그간 세계무역을 견인해 온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축되고 지역별로 재편되면서 주요국들은 경제외교* 정책을 국책핵심전략으로 채택하여 중장기적 전략수립부터 단기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정부·기관·민간이 협업하여 조직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외교는 정부·주체가 되어 기업·기관과 함께(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협업하여 글로벌시장에서 무역권 투자가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거래대상(Packaged Deal)을 가지고 해외 진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남방, 신북방 등 한국형 경제외교 중장기전략을 수립함과 함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추진조직, 제도장비, 상생을 통한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한국형(K)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시하고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제외교를 활용 하여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 주제발표: 2) Helping Enterprises Drive Competitiveness and Digital Transformation (기업의 경쟁력과 디지털 전환)

- 발표자: 스피니커사의 매트 스타바 사장(Mr. Matt Stava)*

미국 덴버에 소재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3차 서비스기업인 스피니커사의 매트 스타바 사장은 "기업의 경쟁력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전환실태를 분석하고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주요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매트 스타바 사장은 24년간 글로벌발전형 기업인 액센츄어(전 매다슨컨설팅) 및 패트루 시스템에서 서울라이 체인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2002년 스피니커메-니지먼트사를 공동 창업했다.

한국기업의 클라우드 활용성숙수준을 보면 중상위 수준은 31%에 불과해 세계 평균인 63%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고성능 기업들이 디지털에 투자하는 반면 디지털화 예산은 대부분 기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90% 가량 투입되고 혁신투자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제3차 서비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그 재원을 혁신에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으로 디지털서비스를 11개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에서 5100만 명의 고객에 제공하고 있는 밀리콤(Millicom)사를 성공사례로 제시했다.

- 특별강연 : 요강, 벨레판도 수출하는 발상의 전환, 기업가 정신 길러야
- 연사 : 이영현 월드옥타 명예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명예회장인 이영현 회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일생을 살아온 생생한 스토리를 통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불굴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영현 회장은 아이스하키를 배우기 위해 캐나다 유학으로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무역업을 창업하여 요강, 벨레판을 고가로 캐나다 유명 백화점에 수출하는 등 1억 불 매출까지 성장하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내어 참가자들로부터 감동을 자아냈다.

이 회장은 당시 200불을 손에 쥐고 48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해 안 되는 영어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공부를 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도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소비자전자전(CES)을 방문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 또한 드론, 로봇, 3D프린팅 등 기술이 바뀔 세상을 이야기하며 "프론티어가 되어야 한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윤원석 회장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 시 1.6조 불에 불과한 국내시장만으로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80조 불이 넘는 글로벌시장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주력산업의 발전과제,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활용,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신화를 통한 창업가 정신 고취 등을 다룬 주제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우리가 직면하는 경제, 산업이슈에 대한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해 회원은 물론 우리 기업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신임 회장의 포부를 밝혔다.

2019서울모터쇼,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 세미나 개최

- 인공지능(AI), 5G 등 IT기술과 융합된 친환경차·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 등 모빌리티 혁명이 불러올 자동차산업의 기술현황과 트렌드 조명
- 자동차 및 전자, IT 업계 관계자와 일반인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후 개최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227개 업체가 참가한 '2019서울모터쇼'에서 자동차 및 전자·IT 전문가들이 모여 자동차산업의 혁신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김기남)가 공동 주최한 '모빌리티혁명과 자동차산업' 세미나는 자동차업계, 전자·IT 업계 및 일반인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후 개최됐다.

현재 모빌리티 혁명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공유자동차 등 자동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해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자동차산업계는 완성차·부품·ICT 업계 간의 전략적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래자동차 모빌리티 혁명·공동자자인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 서정식 전무, (주)KT 최강림 상무, SK텔레콤(주) 이종호 상무, 차럼IT융합산업협회 이모빌리티연구조합 배효수 국장,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산업연구위원이 발표로 나서 참석자들과 미래 모빌리티의 비전 등을 공유했다.

기조연설자인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모빌리티 혁명은 100년 전 포드가 일으켰던 자동차 혁명에 버금갈 또 하나의 산업혁명으로, 무수한 분야에서 거대한 나비효과를 일으켜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에너지 인프라를 자율주행차는 도시 인프라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크게 바꿀 것이며, 공유자동차는 많은 자본을 낳는 유통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서정식 전무는 스마트 모빌리티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능형 자동차 전략인 연결의 초월성(Transcend Connectivity)을 제시하며, 현대자동차는 오픈형 이노베이션 방식의 커넥티드카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완벽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허브, 지능형 원격 서비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시장의 판도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케이티 최강림 상무는 5G 기반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5G서비스 개시로 차량 커넥티비티(Connectivity)시장의 성장 속도가 2배로 빨라지고 급속하게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며, "5G가 Big data, AI, 블록체인, 정밀위치측정 등과 결합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SK텔레콤(주) 이종호 상무는 5G 기술로 진화하는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네트워크로 미디어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며 "전혀 다른 차원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수많은 기기와 정보가 자동차와 연결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했다.

차량IT융합산업협회 이모빌리티연구조합 배효수 국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진화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 ICT 기술융합을 통한 다양한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가 다양화 되고 있다"라고 하며 "모빌리티 산업의 본질과 ICT융합 및 이모빌리티 기반의 교통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선임연구위원은 모빌리티 혁명과 교통서비스의 진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4차산업 혁명에 기인한 교통체계의 변화를 이끄는 3대 동인은 전기화(Electrification), 자율화(Automation), 공유 및 통합화(Shared Mobility Integration)"이며 특히 "도심 저속형 자율주행서들은 그동안 대중교통과 자가용 이용 중심의 교통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이라 말하며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진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편, 2019서울모터쇼는 오는 7일까지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며, 오는 5일(금)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가 제전시장 212호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 한양대학교 이기형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 한국가스공사 이영철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수소, 연료전지 등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동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공의 친환경차로 가기 위한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2019서울모터쇼, 출품모델 3대 중 1대는 친환경차

- 수소전기차 1종, 전기차 42종, 하이브리드차 13종, 플러그인하이브리드 7종 등 총 63종 출품
- 전체 출품차중(187종)의 34%, 2017서울모터쇼 대비 약 14%p 증가
-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체험 행사 및 전시 늘어남

지난 3월 29일(금),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개막한 ‘2019서울모터쇼’에 출품된 차량모델 3대 중 1대가 친환경차로 나타났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에 따르면, 완성차 브랜드 27개(현대, 기아,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 제네시스, 닛산, DS, 랜드로버, 렉서스, 마세라티,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비엔더블유, 시트로엥, 재규어, 토요타, 푸조, 포르쉐, 혼다, 테슬라)와 전기차 전문 브랜드 7개(SNK모터스, 마스타전기차, 인에이블인테네셔널(NIU), 파워프라자, 쉐미시스코, 캠시스, 대창모터스)에서 출품한 친환경차는 총 63종으로 전체 출품차중(187종)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7서울모터쇼 친환경차 출품비중(20%) 대비 약 14%p 증가한 수치다.

세부 유형별로는 수소전기차(FCEV)가 1종, 전기차(EV)가 42종, 하이브리드차(HEV) 13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7종이다.

수소전기차는 현대자동차가 ‘넥쏘’를 출품했으며, 총 42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전기차에서는 기아자동차가 전기 콘셉트카 ‘이매진 바이 기아’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으며, 비엔더블유에서는 전기 콘셉트카 ‘BMW i Vision Dynamics’를 한국 최초로 선보였다.

총 13종이 출품된 하이브리드차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고,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렉서스 ‘UX 250h’가 한국 최초로 선보였다. 이외에도 혼다 ‘아코드 하이브리드’,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아발론 하이브리드’ 등이 출품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7종이 전시 중이며, 포르쉐가 ‘카이엔 E-하이브리드’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춰 조직위는 지속가능 에너지 관련 솔루션을 만날 수 있는 ‘Sustainable World’ 테마관을 올해 신설했으며, 수소버스 전시, 친환경차 체험 행사 등의 콘텐츠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5일(금)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도 컨텍스 제1전시장 212호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 한양대학교 이기형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 한국가스공사 이영철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수소, 연료전지 등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동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의 친환경차로 가기 위한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협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았으며, 4월 7일(일)까지 열린다.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의 우수한 기술, 제품 적극 발굴 나선다(2화차)(2019.4.3)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 우수한 기술·제품 발굴 위해 브리핑 진행

‘안맨드솔루션,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완전자율주행서를 공개’

‘카수리엔오일, 배터리-엔진오일 교환 O2O 서비스 소개’

‘카람, 자동차 정비 O2O 서비스를 전기차까지 확대’

‘녹색드림협동조합, 미세먼지 줄이는 태양광 냉동특크 소개’

● 서울모터쇼 참가업체들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알리기 위해 브리핑 세션 마련

- ①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 ‘안맨드솔루션’
- ② 자동차 배터리, 엔진오일 교환 O2O 서비스 기업 ‘카수리엔오일’
- ③ 자동차 생활장비 O2O 서비스 기업 ‘카람’
- ④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기업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4개사 참여

“기술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2019서울모터쇼’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오는 4월 7일까지 열린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는 지난 1일(월)에 이어 자율주행, 부품소재,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 등을 알리기 위해 ‘프레스 브리핑 2화차’를 3일 진행했다. 본 행사는 향후 서울모터쇼를 모빌리티쇼로 체질을 개선하고, 신제품과 신기술이 발표되는 전시회로 변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프레스 브리핑은 4일(목), 5일(금) 오전 11시에 제2전시장 프레스센터에서 계속 진행된다.

이날 브리핑에는

-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 ‘안맨드솔루션’
- 자동차 배터리, 엔진오일 교환 O2O 서비스 기업 ‘카수리엔오일’
- 자동차 생활장비 O2O 서비스 기업 ‘카람’
-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기업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참가했다.

1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 ‘안맨드솔루션’

안맨드솔루션은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으로 자율주행에서 가장 흔한 자동차분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농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솔루션 기술을 적용 개발하고 있다. 올해 서울모터쇼에는 운전자와 운전석이 없이 목적지만 입력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자율주행서를 ‘위더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문화창 안맨드솔루션 대표는 발표에서 “완전자율주행 형태의 모빌리티를 중소기업에서 개발해 공개한 사례는 국내 최초이며, 해외 유명 경쟁제품이 아직 시범운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 위더스가 공개되고 자율주행 시연까지 진행된다는 점은 국내의 자율주행 기술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기 구동시스템 기반의 자체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을 바탕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내에서 자율주행서를 운영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상용화 계획도 밝혔다.

2 자동차 배터리, 엔진오일 교환 O2O 서비스 기업 ‘카수리엔오일’
카수리엔오일은 카수리 앱에서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면 1급 정비사가 고객에게 찾아가 엔진오일과 배터리를 교환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시간은 평균 40분 내외로 빠르게 진행되며, 1급 정비사가 직접 교환한다. 또한 차량의 타이어공급, 타이어마모도,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수분, 배터리성능 등을 무상으로 점검해 고객에게 차량 상태를 알려준다.

이대형 카수리 대표는 “카수리엔오일은 평균 2~3시간 걸리는 정비사에서의 엔진오일 교환시간을 40분대로 줄여 편의성을 확대한 새로운 자동차 O2O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며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서비스망을 2019년 하반기부터 가맹사업을 통해 전국 광역도시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 자동차 생활장비 O2O 서비스 기업 ‘카람’
카람은 고객이 카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를 입력하면정비사들이 출동해 자동차를 관리, 점검, 정비해주는 자동차 생활관리 O2O 서비스다. 특히 정비 자격증을 보유, 2년 이상의 정비 경력을 가진 정비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비현장의 영상을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신뢰도가 높다.

발표로 나온 박종관 마인디즈-카람 대표는 “카람은 정비문화를 좀 더 솔직하고 편리하게 비공개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탄생한 서비스”라며 “현재 전기차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비업계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업계는 아직 내연기관차 위주의 정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용화 예정인 전기자동차 정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카람은 캠시스 전기차 정비를 시작으로, 전기차 정비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을과 동시에 위치기반 차량 관제 서비스, 자동차 증상 모니터링 및 예지정비 솔루션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4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기업 '녹색드림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 기업으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설립 초기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본 조합은 2019서울모터쇼에 국내 최초로 실용화에 성공한 태양광 에너지저장시스템이 결합된 냉동트럭, 도로용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가로등 등을 공개했다. 녹색드림협동조합 정기인 이사는 "냉동트럭은 정차시에도 냉동과 가동을 위해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냉동트럭들은 디젤차량으로 엄청난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며 "태양광 에너지저장시스템이 결합된 냉동트럭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공회전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연료비 절감, 환경보호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제품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2019서울모터쇼,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육형 체험 프로그램, 캠퍼링 운영

•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인기

- ① '드론 체험 코너'에 드론 코딩 콘텐츠 체험 및 드론 조종 체험 마련
- ② '2019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서 로봇 코딩과 조종 체험 가능
- ③ 3D렌 활용한 자동차 디자인, 자동차 페이퍼 아트워크, 안전체험 등 진행
- ④ 캠퍼링에 13개 캠퍼가 및 캠퍼링 관련 업체들이 참가, 캠퍼링 20여 대 선보임

오는 4월 7일까지 열리는 '2019서울모터쇼'에는 풍성한 교육형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가족단위, 초·중·고·대학생들의 단체관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는 제1전시장과 2전시장에 미래에 활용될 기술들을 경험해보고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형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제1전시장 Mobility World에는 '드론 체험 코너', '2019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이 마련됐다. 드론 체험 코너는 '자동차와 드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운영되고 있다. 관람객은 드론 코딩 콘텐츠 체험과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을 직접 조종해 볼 수 있다. 특히 드론으로 장애물을 넘고 바닥에 놓인 물건을 직접 들어올리는 '뉴시드론 체험'은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2019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서는 스포츠 보드게임, 재난상황 구조체험 등의 주제로 구성된 총 10개 부스에서 코딩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조종되는 로봇을 이용해 다양한 미션 달성 및 게임을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센서, 모터들의 기능을 숙지하고, 알맞게 코딩해 로봇을 조작함으로써 교과과정과 연동된 코딩교육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총 10개 부스 중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참여한 관람객들에게는 상품도 증정해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코너다.

제2전시장 9홀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 있는 캠프관이 운영된다. 캠프관에는 제일모빌, 에이스캠퍼, 더카리반, 에어벤, 동일이엔씨, 버팔로, 다운타맨디, 화이트하우스코리아, 블루버드, 써밋카리반, 패밀리카리반, 자동차시대, 은하모빌 등 13개 캠프카 및 캠프 관련 업체들이 참가해 약 20대 이상의 캠프카를 선보인다.

더불어 제2전시장 9홀에는 카-메이커스/어린이 체험과 자동차 안전 체험 코너가 마련됐다. 카-메이커스/어린이 체험코너에서는 어린이들이 3D펜을 활용해 직접 자동차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완성해 자신만의 차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종이로 자동차 모형을 만드는 '자동차 페이퍼 아트워크' 체험도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제2전시장 자동차 안전 체험 코너에서는 안전벨트 시뮬레이터, VR 교통안전 체험,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안전 운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배울 수 있다. 이밖에도 VR 레이싱 코너에서는 실제 레이싱 차량을 운전하는 듯한 흥미로운 체험도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차는 '플레이 현대(PLAY HYUNDAI)'라는 전시 콘셉트로 모터쇼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현대차의 브랜드와 상품, 신기술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구현했다. 특히 터치타치 수소랜드와 어린이 과학교실 등 다양한 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넥쏘 빌리지에 조성해 수소에너지의 친환경성과 수소전기차 넥쏘의 구동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아이들과 함께 모터쇼를 찾은 학부모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N 빌리지(N Village)에는 벨로스터 N 컵 레이싱 게임, 사우팅 레이스 등 다이내믹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의 우수한 기술, 제품 적극 발굴 나선다(3회차) (2019.4.4)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 우수한 기술·제품 발굴 위해 브리핑 진행

'엔씨엠, 친환경 퍼스널 모빌리티 셰어링 서비스 '메리' 소개'
'한컴MDS, 자율주행 모형차와 IoT 기반 주차 공유 서비스 소개'
'차봇, 자동차 전시장을 위한 '차봇 키오스크' 공개'
'대창모터스, 화물형 전기차 다니고 III 공개'

• 서울모터쇼, 참가업체들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알리기 위해 브리핑 세션 마련

- ① 퍼스널 모빌리티 셰어링 스타트업 '엔씨엠'
- ② 인텔리전트 융합 솔루션 전문기업 '한컴MDS'
- ③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차봇'
- ④ 전기차 전문기업 '대창모터스' 등 4개사 참여

"지속가능하고 자동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2019서울모터쇼'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오는 4월 7일까지 열린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는 지난 1일(월), 3일(수)에 이어 서울모터쇼 참가 국내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 등을 알리기 위해 '프레스 브리핑 3회차'를 4일 진행했다.

이 날 브리핑에는

- 퍼스널 모빌리티 셰어링 스타트업 '엔씨엠'
- 인텔리전트 융합 솔루션 전문기업 '한컴MDS'
-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차봇'
- 전기차 전문 기업 '대창모터스'가 참가했다.

본 행사는 향후 서울모터쇼를 모빌리티쇼로 체질을 개선하고, 신제품과 신기술이 발표되는 전시회로 변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1 엔씨엠의 친환경 퍼스널 모빌리티 셰어링 서비스 'MARY'
엔씨엠은 모빌리티 셰어링 서비스 스타트업이다. 이번 서울모터쇼에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MARY'와 함께 교체형 배터리 스테이션을 선보였다. 메리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사용되는 모든 모빌리티들은 공유에 최적화된 배터리 교체형 제품으로 설계됐다.

발표를 맡은 고옥 엔씨엠 이사는 “메리 웨어링 서비스는 올 가을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0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적합한 형태로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친환경 퍼스널 모빌리티 웨어링 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인텔리전트 융합 솔루션 전문기업 ‘한컴MDS’
한글과컴퓨터그룹의 계열사인 한컴MDS(대표 장명섭)는 1994년 설립된 인텔리전트 융합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이번 서울모터쇼에서 머신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모형차(AI AutoCar)를 선보였다.

장명섭 한컴MDS 대표이사는 “자율주행 모형차는 1/10 크기의 RC 모형 자동차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된 머신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솔루션 교육과 연구개발을 위한 자율주행 플랫폼”이라며 “한컴MDS는 자동차 SW에 대한 관심 증가, 자동차와 IT 융합 트렌드에 따라 자동차 SW 개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컴MDS가 공개한 자율주행 모형차는 한컴MDS의 협력사인 자이트론에서 개발한 센싱 및 인지, 판단을 위한 SW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고성능 GPU 기반의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세서인 NVIDIA Jetson TX2를 탑재하고 있으며, 분산 컴퓨팅 프레임워크인 ROS (Robot Operating System)가 적용된 플랫폼이다.

한컴MDS는 자동차 SW 전문 교육, 컨설팅,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자동차 SW 전문 교육센터인 ‘한컴MDS 아카데미’를 통해 최신 자동차 산업동향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을 위한 디버깅, 컴퓨터비전, 커넥티비티, V2X, AUTOSAR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동차 SW 전문인력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또한 한컴MDS 아카데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ИTP)이 주관하는 ‘2019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자율주행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 연계를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한컴MDS는 자회사인 한컴모빌리티를 통해 IoT 기반의 주차 공유 서비스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3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차봇’
‘차봇’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만의 최적화된 자동차 보험을 찾아주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B2B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 및 실적 관리가 가능한 차봇 Biz 등을 제공하는

인슈어테크(보험에 IT기술이 접목된 서비스) 스타트업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는 키오스크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보험 검색뿐 아니라 가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나아가 차봇은 자동차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서비스로 새로운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완성을 실현하고 있다.

차봇은 이번 서울모터쇼에서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인 ‘차봇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국내 수입차 및 중고차 전시장에 설치해 차량을 구경하거나 구매하면서 누구나 간편하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전시장 모습을 VR 서비스도 제공해, 가상현실을 통해 잠재적인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성근 차봇 대표는 “차봇 키오스크 서비스는 새로운 커넥티드 서비스 ‘차봇 인슈런스’와 ‘차봇 VR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다”며 “특히 고객이 직접 매장을 찾지 않더라도 VR을 통해 차량을 살펴보고, 딜러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판매채널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전기차 전문 기업 ‘대창모터스’
대창모터스는 국내 초소형 전기차 및 2차 전지 전문기업으로, 다나고와 한국아쿠르트 신형 탑승형 전동카드 ‘코고’ 공급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서울모터쇼에는 초소형 화물형 전기차 ‘다나고Ⅲ’을 공개했다. 전차보다 약 2배 큰 13.3kwh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한 번 충전으로 110km 이상을 주행하며, 에어컨, 히터, 파워스티어링휠, ABS, 네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등 편의사양이 다수 탑재돼 운전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전병운 대창모터스 상무는 “대창모터스는 전기자동차용 구동장치, 조향 시스템, 전기차 플랫폼, 파워트레인, 전력제어장치 등을 보유한 국내 전기차 전문 브랜드”라며 “향후 배터, 태배 등을 위해 고속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다나고 밴’, 자율주행 전기차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협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화재를 맞았다.

2019서울모터쇼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 개최(2019.4.5)

미래 수소차 시대 열린다, ‘기술극복·균형적인 투트랙 정책 절실’

2019서울모터쇼,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 개최

- 수소, 연료전지 등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동향 및 발전방향 제시
- 자동차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및 일반인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오후 개최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는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 Connected, Mobility)”이라는 2019서울모터쇼 주제에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동향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에너지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와 자동차산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5일 개최했다.

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형 한양대 교수,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철 한국가스공사 수석연구원, 김민수 서울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자동차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및 일반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최신 미래에너지 동향,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석유수요는 2030년대 초에 최대치에 도달, 2035년 전기차 보급 1억대를 상회하면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수소에너지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미래차의 전개는 “중단기적으로 수소전기차와 배터리전기차가 병행하여 발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사회 전환과 함께 수소전기차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주요국들은 수소차 등의 미래에너지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기형 한양대 교수는 자동차 동력원(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별 장단점으로 상당기간 시장에서 혼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동력원별 시장전망이 다양하고 기술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술별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시장성이 확보될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의 전동화 및 후처리 장치, 하이브리드 기술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보급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세계적인 수소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전기차에 대한 환경성 논란은 수소경제로드맵의 이행으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수소전기차로 1km를 주행할 때, 2020년 평균적으로 CO2 73g/km이 배출되나 2040년에는 24g/km까지 줄어들게 된다. 특히 CO2에 강점이 있는 경유차를 대체할 경우에도 차량 1대당 2020년에는 연간 1.8톤, 2040년에는 3.6톤까지 줄일 수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누적목표(2022년 6.7만 대, 2040년 290만 대)에 따라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경우 2040년에는 약 1천만 톤까지 줄일 수 있다”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는 국내 온실가스 자감에 확실하면서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영철 한국가스공사 수석연구원은 “중대규모 추출 수소 제조공장을 대도시 주변이나 천연가스 인수기지 등에 설치하여 수소배관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도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며, “특히 이러한 방식은 대도시권 대중교통인 수소버스용 수소 공급으로도 적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가격저감 및 차량 내구성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이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이며, 기술개발과 더불어 대량생산으로 수소전기자동차의 가격이 하이브리드차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국내 수소전기자동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현대차는 반대 생산체계를 금년중에 조기 구축하는 등 생산체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2022년까지 310개소를 구축한다는 수소충전소 구축로드맵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더 빨리 더 많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9서울모터쇼에는 전기차 전문 브랜드 등 모빌리티 관련 업체 24개사가 참여하였고 한국전력, 한국동서발전 등 에너지 기업,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소속기업 등 13개사가 참가하는 등 지속 가능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전환 및 모빌리티의 미래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모터쇼는 오는 7일까지 경기도 고양 일산 컨텍스트에서 열린다.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의 우수한 기술·제품 적극 발굴 나선다(4화차)(2019.4.5)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의 우수한 기술·제품 발굴 위해 브리핑 진행 ‘팀와이퍼, 와이퍼 세차장 관리 솔루션 소개’

‘올더타임, MINI 차량을 선택해 탈 수 있는 차량구독 서비스 소개’

‘오토업컴퍼니, 재제조 부품 조회 서비스 소개’

‘로텐, LPG로 튜닝 된 팰리세이드 차량 전시’

● 서울모터쇼, 참가업체들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알리기 위해 브리핑 세션 마련

- ① 세차 스타트업 ‘팀와이퍼’
- ② 차량구독 서비스 ‘올더타임’
- ③ 재제조 부품 조회 서비스 ‘오토업컴퍼니’
- ④ 친환경 대차연료 솔루션 브랜드 ‘로텐’ 등 4개사가 참여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9서울모터쇼’의 폐막이 이를 알로 다가왔다.

5일(금) 오전 킨텍스 제2전시장 프레스센터에는 서울모터쇼 참가 국내 강소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 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프레스 브리핑’ 마지막 행사가 열렸다. 조직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브리핑을 향후 서울모터쇼에는 확대 적용해, 참가업체가 중심이 되는 행사를 꾸려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브리핑에는

- 세차 스타트업 ‘팀와이퍼’
- 차량구독 서비스 ‘올더타임’
- 재제조 부품 조회 서비스 ‘오토업컴퍼니’
- 친환경 대차연료 솔루션 브랜드 ‘로텐’ 등 4개사가 참가했다.

1 ‘팀와이퍼’의 와이퍼 세차장 관리 솔루션
‘팀와이퍼’는 고객의 차량을 손세차장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 ‘와이퍼’로 세차 업계의 선풍적인 인기를 끈 세차 O2O 분야의 독보적인 스타트업이다. 고객은 전화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세차 신청을 할 수 있다. 팀와이퍼는 이번 서울모터쇼에 와이퍼 세차장 관리 솔루션을 소개했다. 광진구 구의동에 오픈한 개러지(창고) 예약형 셀프세차

서비스는 동전 투입 등으로 장비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기존 셀프세차장의 단점을 보완해 공간 점유 시간에 따른 과금을 진행하며, 팀와이퍼가 개발한 셀프세차 예약 앱을 통해 셀프세차가 예약 가능한 시간을 확인 후 모바일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문현구 팀와이퍼 대표는 “팀와이퍼는 손세차, 출장세차, 셀프세차 등 세차 종합 솔루션과 자동차 데이터 유동 시스템을 통해 세차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애프터마켓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이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차량구독 서비스 ‘올더타임’
올더타임은 프리미엄 캐리टे드가 플랫폼 서비스 기업 에피카의 산하 법인으로 이번 서울모터쇼에 에피카와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MINI가 손잡고 선보이는 서비스 ‘ALL THE TIME MINI’를 소개했다. 본 서비스는 멤버십 가입비와 구독료를 내고 원하는 MINI 차량을 선택해 탈 수 있는 구독 형태의 새로운 차량 이용 서비스다. 멤버십은 1년 중 최대 6개월 동안 원하는 달에 원하는 MINI 차량을 골라서 탈 수 있는 레귤러(Regular)와 3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모든 MINI 차량을 체험해볼 수 있는 트라이얼(Trial), 그리고 1년 내내 원하는 MINI 차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에픽(Epic) 멤버십 등 총 3가지 종류로 운영된다.

한보석 에피카·올더타임 대표는 “북미와 유럽시장의 카셰어링 시장은 2025년 이용자 수가 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올더타임 미니는 차량교체 옵션 및 멤버십 등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차량구독 모델로 기존 렌터카 등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3 재제조 부품 조회 서비스 ‘오토업컴퍼니’
오토업컴퍼니는 이번 서울모터쇼에서 재제조 부품 조회 서비스를 선보였다. 재제조란 사용 후 부품(중고부품 포함)을 주원료로 분해, 세척, 검사, 보수 등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 본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조화한 차량에 맞는 재제조 부품과 신부품의 정보와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구매도 바로 할 수 있다.

김선형 오토업컴퍼니 대표는 “재제조 부품은 신부품과 비교하여 50% 이상 저렴하고 품질 또한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오토업컴퍼니의 재제조 부품 조회서비스는 국내외 친환경 정책과 부합하고 대기업 및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독점적 신부품 생태계로 인한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4 친환경 대체연료 솔루션 브랜드 '로턴'
친환경 대체연료 연료 솔루션 브랜드 "로턴"은 대형 승용차는 물론, 2017년부터 규제차
원화된 RV/SUV LPG모델을 개발하여 튜닝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로턴은 이번
2019서울모터쇼에 LPG로 튜닝 된 팰리세이드 차량을 전시해 친환경 LPG 튜닝기술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팰리세이드에 적용된 LPG 액상직접분사 시스템은 직분사방식의 기술인 인젝터를 공용
사용하여 포트 분사 방식보다 높은 연료 효율과 출력을 발휘한다는 장점이 있다. LPG 압에도
기술인 대비 약 95%의 출력과 우수한 연비효율을 통해 친환경,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겸용(Bi-Fuel) 방식으로 LPG와 가솔린을 인제는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

발표로 나선 김병주 과장은 "로턴은 표준화된 LPG 튜닝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과
우수한 품질의 튜닝 기술을 전국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다"며 "LPG 사용 규제 폐지로
인해 사용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수단으로 LPG
자동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품업체들은 2019서울모터쇼에 신기술, 신제품들을 다수 선보이고 있다.
스프링-시트 전문기업 '대원강업(주)'은 시트를 통해 운전자의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상태 체크, 휴식 모드, 휴게소 안내, 건강정보 알림 등이 가능한 '지능형 침단 시트'를
공개했고, 전장부품 전문기업 '유라 코퍼레이션'은 IT융합기술을 적용하는 실내 통합 지능형
전원제어기, 고해상도 영상기록시스템, 전가치를 위한 AC 충전 제어기 및 케이블, DC 충전
제어기 등 침단 통신 및 제어 모듈 개발을 선보였다.

더불어 케이씨모터스는 커스텀 리무진 브랜드인 노블클라베를 통해 자율주행이 보편화된
미래시대에 커스텀 리무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편의성을 보여주는 부스를 꾸며
관람객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기업 '진한(주)'은 차량 건강화를 위해 강철을
대체하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섬유 등 이종소재 체결 기술, 고정밀 방간 단조 및 가공 제품
들을 선보였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협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이틀 남은 2019서울모터쇼 ‘비오는 주말 실내 나들이로 적적’

- 각 완성차브랜드에서 체험 프로그램 및 게임 풍성하게 준비
- 레이싱 게임, 자동차 디자인 프로그램 등 마련돼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인기

비오는 4월의 첫 주말, 나들이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실내에서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2019서울모터쇼를 눈여겨보자.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는 지난 3월 29일 개막해 오는
7일 일요일에 폐막하는 '2019서울모터쇼'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마지막 주말을
넘겨두고 비를 피해 실내 나들이를 온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모터쇼는 아이들 또는 자동차 문화에도 쉽게 참여하고 자동차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체험이벤트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19서울모터쇼에서는 각 완성차브랜드에서 체험 프로그램
및 게임도 풍성하게 준비해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현대차 N 빌리지(N Village)에는 벨로스터 N 컵 레이싱 게임, 사우팅 레이스 등 다이내믹하고
즐거운 이벤트가 마련됐다. N컵 레이싱 게임은 실제 차량 운전석을 구현한 시뮬레이터를 통해
주행 시간에 따른 순위를 경쟁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우팅 레이스는 참여자가 내는 소리로 모형
자동차를 움직여 경주를 펼치는 게임으로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현대차는 다양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현대차 전시관내 친환경에너지
교육 코너에는 '어린이 과학교실'을 운영해 과학실험을 통해 수소차의 구동원리를 학습할 수

페막 하루 앞둔 2019서울모터쇼, 토요일 구름 인파 '이번 기회 놓치면 2021년에 만나요'

2019서울모터쇼 페막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구름 인파가 몰려 북적이고 있다. 2019서울모터쇼는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열리며,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제네시스 등 국내 완성차 6개사와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수입 자동차 브랜드 15개사 등 총 22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홀수년도에만 열리기 때문에, 올해 행사를 놓치면 2021년에 다시 만날 수 있다. OICA(세계자동차산업협회)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모터쇼다.

있다. 그 옆에는 '미세먼지 정화 실험'공간이 마련됐다. 담당 안내 선생님이 수소전기차가 달릴수록 미세먼지가 정화되는 원리를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며 실제로 오염된 공기를 자동차가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현대차는 별도의 전시관을 통해 '2019년 로보카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 인기 캐릭터 '폴리'를 통해 아이들이 교통안전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게 꾸몄다.

혼다 전시관의 '혼다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을 뉴스 앵커처럼 직접 소개하는 영상을 전문 PD의 도움으로 제작할 수 있다. 또 최상위 클래스 모터사이클 그랑프리인 Moto GP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코너링 각도를 구현해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이내믹 서킷' 체험존도 운영하고 있다.

기아차는 자동차 모형에 어린이들이 물감으로 직접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아차의 히스토리를 키워드로 타이핑하는 '기아 타자 게임'을 준비했다. 또 낯선 부스에서는 E-pedal challenge를 준비해 e-페달 하나로 시동, 가속, 감속, 중지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 토요타 전시관에서는 참여자가 디자인한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협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가 공동주최한다.

막 내린 2019서울모터쇼 관람객 62.8만 명 찾았다(2019.4.7)

막 내린 2019서울모터쇼, 관람객 62만8천여 명 찾았다(확정) “모빌리티쇼로 발전가능성 엿봐, 즉시 차기 모터쇼 준비할 것”

-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이라는 이번 주제를 차기 모터쇼까지 유지
- 차기 모터쇼,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현재 227개 업체 → 500개 이상의 업체 유치 총력
- 2019서울모터쇼, 참가업체가 주인공이라는 기존 아래 차별화된 시도 다수 도입, 성과 거둬
 - ① 서울모터쇼 주제에 걸맞은 7개 테마관 구성, 차기 모터쇼에도 테마관 운영 예정
 - ② 강소기업들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개하는 기회와 장 마련해 나갈 계획
 - ③ 첫 도입한 개략식 키노트 스피치, 차기 모터쇼에서도 지속 운영해 선순환 구조 정착
- 향후 서울모터쇼를 CES, MWC와 버금가는 아시아 대표 모빌리티쇼로 만들기 위해 총력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열린 2019서울모터쇼가 막을 내렸다. 총 열흘간 누적 관람객은 62만8천여 명에 달해 2017서울모터쇼 대비 소폭 증가했다.(4월 7일 19시 기준 확정지, 2017년 6만여 명 방문)

2019서울모터쇼는 총 21개 완성차 브랜드에서 신차 40종(월드 프리미어 7종, 아시아 프리미어 11종, 코리아 프리미어 22종)을 포함해 전기차 전문 브랜드 6개, 이륜차, 캠핑카 등 약 270여대의 자동차를 출품했고, 통신사, 에너지 기업,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부품회사 등 전체 참가업체는 227개에 달했다. 특히 이번 서울모터쇼는 참가업체가 주인공이라는 기존 아래 차별화된 시도를 했다.

1 2019서울모터쇼는 모빌리티쇼로의 체질개선을 위해 세계 자동차산업을 관통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3개의 테마를 포함해 총 7개 테마관으로 전시장을 꾸며 관람객들이 미래 자동차산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춰 SK텔레콤이 최초 참가했으며, 한국전력, 한국동차발전 등 이전 모터쇼에서 볼 수 없었던 기업들이 참여가 늘어났다. 조직위는 테마관 구성을 향후 열리는 모터쇼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관련 기업 유치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2 더불어 우수한 기술과 제품 등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행사기간 중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브리핑 기회를 마련했다. 모터쇼 기간 중 평일 4회 개최된 브리핑에는 앤맨드솔루션, 모빌테크, 차넷, 대창모터스, 로던 등 15개사가 참여했다. 본 행사는 향후 열리는 서울모터쇼에서 참여기업과 규모 등을 더욱 확대해 강소기업들이 신기술과 신제품을 모터쇼 현장에서 처음 공개하는 기회와 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3 또한 개막공연, 축하 등 행사성 위주의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참가업체들이 직접 자사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키노트 스피치를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현대자동차, K텔레콤, 자트코코리아 등 3개사가 참여했으며, 향후 모터쇼에서도 신기술과 신제품을 공개하는 기업들이 언론과 바이어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이를 통해 다른 참가업체들도 키노트 스피치 참여 의지를 다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정만기 위원장(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2019서울모터쇼는 이번 체질개선을 통해 CES, MWC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아시아 대표 모빌리티쇼로의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엿봤다”라며 “패각 이후 즉시 차기 모터쇼 준비를 시작할 것이며,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이라는 금번 모터쇼 주제를 유지하고, 완성차 및 부품업체뿐만 아니라 통신업계, 전장기업, 에너지 기업 등 참가업체 유치에 뛰어들어 2021서울모터쇼를 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여 신기술과 신제품을 최초 공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관련 업계의 기술혁신을 주도해가는 아시아 대표 모빌리티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협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주년을 맞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가 공동주최한다.

첨부자료 1

2019서울모터쇼
광고 및 홍보물

TV CF(콘티)



더 지속가능한 에너지

더 스마트한 세상



더 다양한 이동수단을 향해

자동차, 미래를 경험하라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컨텍스에서 2019서울모터쇼

인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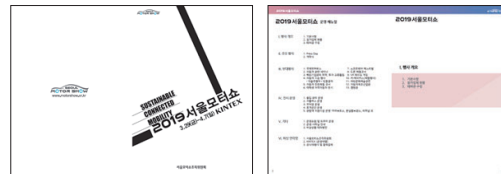
• 포스터



• 리플렛



• 온오프라인



• 입장권



현장판매 입장권(초종고생)

입장권 뒷면

첨부자료 2

2019서울모터쇼
홍보 사인물

• GATE 현판



• 옥외가로등배너



• 대형가로등배너(2전시장)



• 구름다리 현수막



• 무빙워크 현수막



• 외벽현수막



외벽현수막(1전시장 5층)



외벽현수막(1전시장 1층)



외벽현수막(2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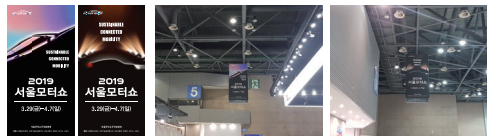


외벽현수막(2전시장 하역장)

• 로비콘코스배너



• 전장배너(사각큐브형)



첨부자료 3

2019서울모터쇼
각종 사진자료

개막식



프레스데이



콘퍼런스



세미나



전시장 전경







야외 전경



체험프로그램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